현대불교

제 76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1월 27일(음력 12월 13일) 수요일(주간)





아이티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기를…

조계종 총무원 적십자사에 5만불 우선 전달… 산하 사찰, 국제구호단체 등 구호 앞장

"국민 78%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티는 현재 지진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지진보다 더 큰 불교계 자비가 뻗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아이티 긴급구호기금 모연에 들어갔다.

총무원은 1월 15일 국제적십자사에 5만 달러를 우선 전달, 애도문을 발표한데 이어 18일 전국 1700여 사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동참을 당부했다.

18일 종무회의에서 모금운동을 비롯한 종단차원 방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한 자승 스님은 "캠페인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성금이 모이고 있다.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티 이재민들에게 불자들의 정성이 전달 돼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18일 아름다운동행에 각 100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1000만원, 경산 갓바위 선본사(주지 향적) 2000만원,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가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1일에는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3000만원, 구룡사 1000만원, 여래사 1000만 원 등 통도사 본 · 말사에서 총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22일 1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각 사찰들의 성금 행렬이 줄지었다.

아이티 돕기 행렬에 첫 테이프를 끊은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반결제 포살에서 선원대중의 뜻을 모은 것"이라며 "비록 먼 나라지만 불자여러분은 세계일화 정신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도 "성금만 남몰래 전하려고 했는데 동행까지 온 것은 마음내는 사람들을 독려키 위함"이라며 성금이 아이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했다.

성금 전달과 함께 조계사 · 봉은사 등 조계종 사찰과 지역 사암연합회 등은 18일 사찰 일주문과 경내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다.

태고종도 1월 21일 전국사찰에 공문을 보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교계 각 종단도 종단기구와 산하 복지재단 등을 통해 아이티 돕기 모금에 동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불교계 구호단체들의 모금활동도 활발히 펼쳐졌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인류의 대재앙 앞에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동체대비 사상에 입각해 서로 도와야한다"며 지난 15일부터 긴급구호 캠페인을 실시해 모은 1000만 원을 19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또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정토회(이사장 법륜)도 15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현재(1월 22일 오후 6시)까지 모금된 성금이 약 1억 4050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은 "일반인 130여 명과 사찰 20곳이 동참하는 등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 박선주 기자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수십만의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아이티를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각계각층의 단체와 사람들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불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조계사 인성 스님과 신도들이 법당 앞에 마련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모금동참		
	아름다운동행	(농협: 031-0029-6115-71)
	지구촌공생회	(기업:062-070908-01-011)
	로터스월드	(신한:100-021-108016)
	정토회	(국민:075601-04-000298)

정장식 교육원장, 자승 스님 예방

경북도지사 경선 앞둔 면죄부 성격

6월 실시되는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장식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포항시장 재임 당시 포항시 성시화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 불교계의 비판을 받은 정 원장의 이번 예방은 당내 도지사 경선에 앞서 불교계 표를 의식한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2008년 3월 취임한 이후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종교지도자 특강'과 '종교 차별 예방교육'을 펼쳤다"며 "2010년에도 종교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종단 초빙강의를 불교 5회, 가톨릭 3회, 개신교 2회 등으로 균형을 맞췄다"며 공직자 교육에 불교계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신임 회장에 자승 스님 추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 21일 총회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한일협)는 1월 21일 오전 서울 W컨벤션센터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한 · 일 양국불교의 흥륭(興隆)과 우호친선, 불교문화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부이사장으로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새로이 선출됐다. 현재 부회장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유임됐다.

총회에서는 2010년 예산으로 총 3억 4222만원이 확정됐으며 올해 주요 사업으로 △5월 25~29일 한일불교문화교류 제31차 대회 △5월 제4회 무차만발공양 △10월 제6차 한 · 일 여성교류대회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위령사업 △일제강점기 반출 문화재 환수사업 등 사업 추진이 결의됐다.

노덕현 기자

문광부 '종교차별' 책자 배포

사례집과 예방교육 교재 행정기관에 보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집>과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를 발간해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 · 배포한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집>은 종교차별 사례 분석과 판례 등을 통해 종교차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다종교사회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규범적 내용 등을 비롯해 교육 매뉴얼을 수록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과 <교육 교재>의 개발 · 보급은 일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광부는 2008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 중이다. 또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 △각급기관 직장교육 시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전국 공직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합동워크숍' 실시 등 종교차별 예방교육도 실시해 왔다. 박선주 기자

연꽃마을 스님 간병비 전액 지원안 발표

스님들이 비용 지불 없이 간병을 받게 됨으로써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스님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개정안을 1월 20일 발표했다.

지난 해 9월 '스님 간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스님의 요양비 부담금 중 50% 지원하기로 발표했던 연꽃마을은 1월 18일 2010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스님 간병비 지원 규정' 일부를 개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꽃마을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의 간병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전액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스님 직계 부모님의 요양비 및 간병비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나은 기자

▶5 현장-용주사 성도재일 철야정진 ▶14 선지식-도성 스님 ▶8 인터뷰-진각종 통리원장 ▶23 강의실-세준 스님



社說

늘 밝은 마음으로 살자

동광혜두(東光慧頭, 1900~1976) 선사가 성도절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올랐다. 선사는 주장자를 치고 대중을 향해 "부처님은 어느 별을 보고 성불하였는고?"하고 물었다. 대중이 말이 없자 "누가 나에게 물어라" 했다.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부처님은 어느 별을 보고 성불하였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선사는 잠시 침묵을 하고 대답했다. "지금 내게 묻는 바로 이 별을 보고 성불하셨도다."

지난 22일은 성도절이었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철야용맹정진을 하며 부처님처럼 성불 할 것을 발원했다. 부처님은 만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중생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부처이고 깨달음의 별인데 오탁악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월등불(日月燈佛)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두운 중생계의 그림자로 묻혀 지내는 것이다.

마음을 밝히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마음을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마음이 밝아진다. 깨달음은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그 순간이 정각의 순간이고 성불의 순간이다. 그 순간이 모이고 모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성도절의 그 정진과 발원이 매 순간 마음을 밝히는 별로 빛날 때 우리 모두가 성불한 존재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논산훈련소 법당 한시가 급하다

군포교에 대한 조계종의 의지가 다시 한 번 결집됐다. 군종교구의 임원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하는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에 종단이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병들의 수계가 신행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은 군포교의 최일선이다. 사회에서 막연하게 불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장병이나 무종교이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정도의 장병들을 확실한 불자로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불교를 '선택'한 장병은 자대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나갈 수 있다.

현재 조계종은 논산훈련소에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다. 이미 실무자들도 다른 종교의 시설들을 답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종교의 거대한 시설에 비추어 보면 대형 법당 건립불사는 한 시가 급한 일임을 실감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금 이 순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장병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종교구의 치밀한 사업 진행 그리고 국군불교총신도회 등 불교계 단체들의 동참이 어우러진다면 법당 건립이 그리 어려운 불사는 아닐 것이다. 올 해는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에 조계종의 원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길 기원한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지진의 참상에 대비하자

언론은 연일 중남미 카리브해의 작은 소국 아이티의 강진 피해 현장을 보도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진흙과자로 알려진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지난 12일부터 비극의 땅이 되었다. 흰 천만 씌운 채 뒷골목에 안치된 시신과 파괴된 건물의 잔해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어린이의 사진이 눈물겹다. 2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상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도 수 만 명이 깔려 있다.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희생자가 많은 매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무너진 건물이 많아 역부족이다.

굶주린 난민들의 구호품을 갖기 위한 몸부림은 폭동으로 이어져 약탈자가 경찰의 총을 맞는 사건도 발생했다. 구호물자 공급이 지연되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빈민층이 동요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너진 건물과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식량난 속에 치솟는 생필품 가격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보다 앞선 지진의 역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재앙 그 자체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꿔 놓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런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고 있다. 지금도 아이티에 이어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도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일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등이 속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해 있는 유라시아판이다. 이 지진대는 세계 지진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1999-2008년)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는 평균 41회나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6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관측 이후인 31년 만에 가장 지진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홍성 대지진만 해도 건물 파손이 무려 118동에 이르렀다.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지진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남서쪽에서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5만 여명이 사망하고 62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우리도 이제 아이티 지진 참사를 교훈으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일반 건축물에도 내진설계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구에 대해 참 무심한 편이다. 자연과 환경이 좀 파괴되어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작금의 폐해로 드러난다. 하나하나의 사물은 우주의 섭리와 무관할 것 같지만 삼라만상에는 근본이 존재한다.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서 말하는 십여시(十如是)는 세상의 근본을 잘 설명한다. 그 중에서 상(相)은 모양을 뜻한다. 태고 적부터 이루어져 억만년이 되어도 변치 않는 세상이 우주이고 그 여여한 우주의 참 모습을 실상(實相)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우주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 왔다. 그러한 우주의 참모습을 법신진여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인 셈이다. 삶은 오늘도 십여시의 조화 속에서 순리대로 움직인다. 이번 아이티 참상도 우리가 개발보다는 자연을 소중히 하며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물 흐르듯 살아가야 하는 가르침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나'보다 '우리'먼저 생각하는 삶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기가 되면 신문 잡지 TV 모바일 인터넷 웹사이트 등 미디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년운세' 테마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한다. 그 콘텐츠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자신의 신년운세를 들여다본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패러다임이 세상을 주도하는 지금도 사람들의 사고 · 생활 패턴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맘때가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이나 운세를 점쳐보는 사람들의 습관도 결국은 새롭게 시작될 한 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새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새해 소망으로 이어진다. 새해맞이 해돋이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려보자. 붉은 해가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경이로운 순간, 동서남북 사방에서 같은 해를 보고 있는 몇 천만 명의 눈빛은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등 각기 다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지 않던가!

나 역시 범인(凡人)으로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우선으로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기도를 해왔고, 개개인이 각자 행복하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있었던 아이티 지진 대참사 속에서 자신을 지켜 줄 부모를 잃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해서 행복을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름도 모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도 없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행여 훗날 나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과정 속에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리라.

지나간 어느 해의 첫 날,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도 골 깊은 갈등과 고통에 빠져 있으므로, 누구나 평화와 행복을 갈망한다. 한데 불행하게도 그 갈망은 사람들을 덧없는 쾌락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나는 믿는다. 물질적인 발전이 계속되어도, 진실에의 추구는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훨씬 더 커지리라"라고. (달라이 라마,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中)

디지털 통신 기술과 함께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우리의 정신적 거리는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남승희
SKT Data사업본부
전략컨텐츠개발팀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정토선원 창종공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조의 혜명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맥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불교는 중생교화와 정법안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정대법사께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시고 정토선수기를 받아 오셨습니다.
쉽고 빠르게 윤회로부터 벗어나 깨달을 수 있는 정토선수행을 모르고 미혹에 끄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려 뜻을 모아 정토선수행법으로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지침의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토선 수행으로 석존께서 영겁기단이 되고 이땅에 번영과 불일이 빛나길 바라는 일념으로 대한불교정토선원을 창종하였습니다. 이 결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새로운 세계를 엽시다.

대한불교정토선원 총무원장 등정

창종위원 : **일각 법경 흥전 법산 보해 법철 법현 광영 혜산 등정 무상 대명 혜산**

■ 창종일시 : **2010년 1월 31일 사시**
■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73-1 대한불교정토선원 총본산 오두산 서방사 / TEL 055)673-3719

정토선(淨土禪)은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염불하여
선과 정을 동시에 닦는
자성염불의 수행으로
무념의 경계에
이르도록 수련하여
명심견성하는 선(禪)입니다.

‘진흥원 주권’ 놓고 조계종과 진통

진흥원특위 · 진흥원 갈등 심화… 자승 스님 예방하며 대화 물꼬


1월 22일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가운데)과 김규칠 상임이사(오른쪽)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가 보낸 서한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해 거액을 헌납한다는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장 거사의 장한 뜻에 박 대통령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불교 진흥에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그렇게 설립됐다.

1975년 8월 16일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진흥원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불교방송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군포교, 불교 학술지원 등 불교계 곳곳에 진흥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큰일을 해 온 곳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진흥원을 사이에 두고 동경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비판부터, 이사회 등 운영방식까지. 조계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계종과 진흥원의 불편한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8년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를 결성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는 “조계종 스님의 진흥원 이사회 재진출을 통해 진흥원 출범 당시의 종단과 진흥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차회(의연 · 현조 스님) 무량회(진화 스님) 화엄회(각원 스님) 보림회(선문 스님) 등 종책모임 별로 위원을 선임해 진흥원특위를 꾸렸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주요 종책모임 별로 골고루 안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계종이 진흥원을 접수하기 위해 종책모임간 이해가 일치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종회에서 특위까지 꾸려진 상황에는 당시 불교방송 사장추천을 둘러싸고 진흥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방송 핵심인사의 입김이 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진흥원특위는 “진흥원은 조계종을 보조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단체”라며 “10 · 27법난 전까지 스님 이사가 있었던 만큼 이사회에서의 조계종 지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흥원 설립 당시 이사회가 정부 · 국회대표 3인과 조계종 대표 2인으로 구성됐던 만큼, 정황상 조계종에 ‘국가에 의해 임명된 당연직 이사기관’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계종 측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1975년 8월 15일 문화공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발송된 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허가서이다. 설립허가서에 첨부된 ‘재단운영 사업계획’에 조계종 총무원 운영보조가 첫 번째 사업이었다는 것.

진흥원특위의 한 스님은 “진흥원이 정부출연기관이면서도 정부나 조계종의 견제 ·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신직이나 다름없는 이사의 선임마저 자의적으로 이뤄져 사유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흥원특위는 지난해 말 진흥원에 신군부 지원 사유 등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이어,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를 밝혀보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구랍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토론회 불참과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를 결의했다.

종단과 재단, 출 · 재가의 대립양상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던 양측의 대립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1월 22일이다.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진흥원 특위 의연 스님과 김규칠 진흥원 상임이사도 배석해 대화의 대부분을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 특히 토론회에 관해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 직후 자승 스님은 “진흥원 측에서 예정된 토론회가 일방적이고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진흥원특위와 진흥원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토론회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종회 특위와 진흥원이 잘 합의해 처리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갈등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연 스님은 “진흥원특위와 진흥원 간에 대화가 부족했다”면서 “진흥원특위 스님들과 상의 후 필요하다면 토론회 연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 적극 지원”

군종교구 신년하례서 자승 스님 천명


1월 8일 군종교구 · 군불총 임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8일 군종교구 · 국군불교총신도회의 신년하례에서 군포교 증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군포교 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을 설명하며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10 · 27법난기념관과 교육관을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군포교 현안인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에도 종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승 스님은 “포교원과 협의해 사병 수계가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군국불교총신도회 박정이 회장(육군 중장)은 이날 예방에서 △현역 중심 조직개선 △영관급 신도회 연계 △창립10주년 기념법회 등 주요 사업 전개 △주한외국군인 법회 동참 등 신년계획을 밝히며 “자비와 보시, 실천행을 지침으로 군종교구와 협력해 군불교 발전과 호국불교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이에 대해 “새로 군불총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이 회장을 비롯한 신임 군불총 임원진이 훈련소 불사 등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군종교구는 이날 예방에 앞서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 등 2010년 중점사업 방침을 밝혔다.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육훈법당은 5000명 규모로 교육관 등이 갖춰진다. 1월 초 논산훈련소 부지를 답사한 군종교구는 최근 건립된 천주교 · 원불교 시설 등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핵심 사업인 육군훈련소 건립불사를 필두로 실질적인 포교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성원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공개변론

21일 대법원서 강의석씨·대광학원 엇갈린 주장

5년여를 끌어온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의 공개변론이 1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의 합숙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기독교를 신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이 아침기도회, 식사 전 기도회, 취침 전 기도회, 촛불의식이나 성경읽기, 찬송 등을 행하게 한 것이다.

또 대광고의 생활수칙 중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한다’ 는 구절을 학생들에게 암기하게 하고, 휴일인 성탄절에 특정 교회로 출석하게 한 후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일 등이 있었다.

이에 강씨는 “주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됐음에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제배정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학은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대체수업, 자율적 수업참가 등 사학의 종교교육 자유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영란 대법관은 대광학원 측에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자율적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면 위헌성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대광학원 측은 “현재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복수로 편성하고 학생에게 종교과목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건강한 인성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4대강 사업 철회 국민서명운동

4대강운동본부 21일 출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 · 사회단체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4대강 사업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본부’는 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고문은 명진 스님(조계종 봉은사 주지),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 정상덕 교무(원불교), 최덕기 주교(천주교 수원교구 전 교구장), 최완택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등 종교계 원로들이 맡았으며, 대표 본부장은 도법 스님(조계종 실상사 주지)이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수질오염과 농경지 침수, 자연경관 파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소송과 함께 전국민적 서명운동으로 이 사업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철회 서명은 3월 말까지 300만명을 1차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는 천주교 · 불교 · 개신교 · 원불교 · 대한성공회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해 신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박선주 기자**

죽비와 목탁

교정에도 부처님 가피 필요해



개신교계 첫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아가페 교도소)의 올 6월 완공을 두고 불교계의 우려가 크다.

불교계는 수형자들이 입소를 위해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색채를 띤 교정프로그램으로 선교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개신교계의 완공을 앞두고 불교계는 무엇을 했을까? 2005년 개신교계의 추진 당시 불교계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수백 억에 달하는 예산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개신교의 경우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세미나를 열고 모금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나 정치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넣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개신교계에서는 기존 민영보호감호시설 운영 등으로 구축된 내적 역량이 큰 힘을 발휘했다.

현재 교정활동 전반에는 불교계의 열세가 두드러진다. 청소년 위탁감호시설만 보더라도 10여 개에 달하는 기독교계 시설에 비해 불교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선 민간위원과 불자교정인들의 활동도 분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교도소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해 제2의 민영교도소, 제1의 민영소년원이 추진된다면 불교계는 또 다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아이에게 어른처럼 무작정 뛰라 할 수 없다. 지방 산사와 폐교 등을 연계해 불교계 보호감호시설부터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출소 후 자활을 돕기 위해 올 1월 법무부가 각 지역에 설립한 ‘중간처우의 집’ 등에 인근 사찰들이 참여해 상담과 창업을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개신교계 민영교소도 운영을 넘어 불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교교정상담 등 교화의 가장 낮은 자리부터 역량을 쌓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묵은 빚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법륜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조계사 '천도재 상업화' 파문

총무국장 영공 스님 기자회견서 논란 일축

"천도재를 면죄부에 빗대 미신으로 매도하는 것은 신도들의 불심과 효심에 대한 모독이다."

조계사 총무국장 영공 스님은 1월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와 같이 조계사 천도재에 대한 상업화 논란을 일축하고 "천도재는 현대인들의 종합 신행시스템으로 수행과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도재를 다단계 판매 상품정도로 표현하는 모 언론의 기사는 보편성을 잃은 기사"라며 "불교를 비방하고 발전을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영공 스님의 입장은 부주지 토진 스님과 기획국장 성진 스님을 제외한 조계사 대중 스님의 입장으로 조계사의 '천도재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세민 스님 임기와 관련한 일부 음해 세력에 의한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계사 신도회의 사찰공개 운영 등 최근의 급작스런 운영 시스템 변화가 세민 스님의 임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영공 스님은 "세민 스님의 임기는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권한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조계사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자 1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도회는 "교계 언론을 이용해 조계사와 주지 스님을 음해하고 근거 없는 추측보도와 비방을 일삼아 승가를 분열 시키는 음해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계사의 '343일 천도재'는 세민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2008년부터 부채 청산과 조계사 개산 100주년 성역화 불사를 위해 시작됐다. 이로써 73억 중 42억의 부채해결, 8각 10층 석탑불사, 사적비 건립불사, 삼오모텔 매입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면 무리한 진행에 따른 부작용과 기복 불교를 양성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2차 343일 천도재 진행에 앞서 조계사는 천도재 동참 안내 전화를 신도들에게 하고 공개 영구위패 등에 대한 노골적인 모연행위로 '본래 의도를 벗어나 신도를 돈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조계사는 신도들의 의사를 반영해 3차 343일 천도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계사 대중스님들은 "조계사 성역불사를 위해 세민 스님이 주지 소임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세민 스님을 지지하는 신도와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현대인들의 참된 신행 활동을 찾는 파사현정의 길이 될지, 정당한 자기 주장이 될지 불자들의 시선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로 모아지고 있다.

이상언 기자

"주인공으로 메이크업"

서울 경찰청 등 신행단체 신년법회 잇따라 봉행


1월 21일 서울 경찰청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벌써 1월의 끝자락이다. 희망을 가지고 거창하게 세운 새해 계획들인데 벌써 흐지부지 된 일들이 수두룩하다.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지만, 새해 소망을 도반들과 함께 서원하는 신년법회가 잇따라 봉행되고 있다.

1월 21일 점심시간. 서울 경찰청(청장 강희락) 법당에서는 공양소리 대신 목탁과 반야심경 독송소리가 울려 퍼졌다. 매주 목요일 정기 법회날이지만 신년법회답게 법당에는 80여 명의 불자들로 가득 찼다.

신년특별초청법문을 한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이날 '주인공의 삶으로 make-up하는 한해'라는 유쾌한 주제로 법문을 했다. 계성 스님은 "세상을 확실히 알면 크게 좋아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생로병사로 귀결되는 삶을 평탄하게만 보내려고 하지말라"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 또한 인생의 큰 재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넉넉한 웃음과 친절, 진실함으로 참된 '나'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을 안겨줬다.

서울 서초사암연합회(회장 법안, 대성사 주지)는 20일 신년조찬법회를 봉행했다. 법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화합해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박성중 구청장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협조를 통한 명품 도시, 인류행복도시 창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찬 법회에는 관내 32개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회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서울시불자회 이동우 회장(서초구청 과장), 서초불교협의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법조인 재가불자 단체인 서초반야회(회장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저녁 7시부터 서울 대성사(주지 법안)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수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참된 신행생활을 위한 시작으로 수계법회가 가장 좋다는 반야회 회원들의 요구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법회에서는 박홍우 판사, 여상훈 부장판사(서울고법), 박희승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경구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이준범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20명이 수계를 받았다. 박홍우 판사는 올 한해 "'수행과 나눔'이라는 기치 아래 공부모임, 급식봉사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바라밀의 날' '1인 1명 포교하기'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원했다.

성남시총사암연합회는 성남시공무원불자회와 함께 15일 성남시 대강당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임선교 성남시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은 "시와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다지는 계기이자 공무원불자회의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분별과 경계를 넘어 함께 나가자'는 주제로 1월 27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한다. 신년하례회에서는 중앙신도회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보고,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 감사패 증정식도 진행된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과 각 사찰 및 지역 재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은정·궁플란트치과 협력병원 조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궁플란트치과(대표원장 최우환)는 1월 18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에 참석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월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궁플란트 치과와 함께 더 많은 이웃을 도와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우환 대표원장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應無所住而生其心) 부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와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월 스님과 최우환 원장.

궁플란트치과는 매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추천한 무의탁 독거어르신 1명,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 2~3명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02)722-2870

이상언 기자

美 워싱턴서 불음 전파 나서

고려대 불자교우회 첫 해외지부 창립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회장 김복주, 이하 고불회)는 해외 첫 지부를 창립하고 명상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와 성장 동력이 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워싱턴 DC에 생긴 고불회 워싱턴 지부는 명상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포교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1월 10일 메릴랜드 한국사에서 봉행된 창립법회는 창립회원 12명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수(입학 72학번) 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황인수 초대회장은 "참선 위주의 신행을 통해 동문간의 침목을 다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불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 것"을 서원했다. 황인수 초대회장은 메릴랜드 보현사 신도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워싱턴 수생식물원에서 개최된 '연꽃과 아세아 문화축제' 준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포교에 앞장서 왔다.

창립법회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워싱턴을 방문한 최평규 박사(교우회 상임이사)는 "창립멤버가 워싱턴 DC에서 불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자세로 포교하라"고 당부하고 불서 100권을 기증했다.

고불회는 세계 고대 동문들 불자회 창립을 통해 범세계 불자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 워싱턴 DC 이어 LA,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해외지부 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100字 뉴스

조계종 호법부 '보이스 피싱 각별 주의' 공문

사찰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는 1월 19일 "사찰을 상대로 한 변형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에 따른 일선 사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호법부는 공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손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전적 손해 외 사찰의 대외적인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의심전화가 올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호법부로 연락을 취하고 주변 사찰과도 연락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02)2011-1836

조계종 분담금소위 본말사 분담금 조정 본격화

94년 종단 개혁 이후 일괄 편성돼 온 조계종 본·말사 분담금 조정이 본격화됐다. 중앙종회 '분담금 등 조절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성월)는 1월 18일 분담금의 요율에 대해 논의하고 "각 사찰의 환경과 상황이 바뀜에 따라 배분받은 분담금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조정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차등화 된 '분담금 요율'에 대해 예산실사 등을 통해 재지정하는 방안과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주지회의와 교구본사 재정국장 회의 등에서 의견수렴 후 2011년 예산에 반영키로 결의했다. 다음 회의에서 특별분담금사찰 추가 지정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수덕사 선원 대중공양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 재가연대)는 1월 30일 '이웃 벗들과 함께하는 기부순례-회원가족의 해피타임-선원대중공양'이란 제목으로 재가연대 회원을 비롯한 불자들과 함께 수덕사 선원에서 대중공양을 진행한다. 출발은 오전 8시 양재역. (02)2278-3671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가야금, 대금, 서예 등의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가야금 입문강좌는 3월 10일~ 6월 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하며 12명 접수받는다. 대금 산조배우기 강좌는 3월 10일~8월 2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30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각 수강료는 30만원.

서예 초급 강좌는 3월 8일~8월 16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민화·불화 초급반은 3월 4일~8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각각 마련됐다. 모든 강좌는 견지동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에서 진행된다. (02)720-1079

태고종 사정원 효성·호명·재홍·천운 스님 인사

태고종은 1월 18일 공석중인 중앙사정원 사정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사정원 사정위원에는 효성 호명 재홍 천운 스님이, 사무처장에는 지상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이 개혁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사정위원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0년 2월 28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중국상담 안내처 :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86-25-84028773 · 핸드폰 : 86-13-585195431
· 팩 스 : 86-25-84028478~9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림

조기유학생 모집
초6년-고3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중고등) www.njsdfx.co.kr

2009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윤치영(해성고) ▲박설영(경성대) ▲김경표(휘문고)
▲정화용(용문고) ▲신재훈(대중금속고) ▲최영화(황지고)
▲장원석(경신고) ▲김동성(중일고) ▲한승미(우송대)
▲안성환(김천고) ▲김도경(진선여고) ▲도현운(영남대)
▲백지훈(동신대) ▲윤두경(일동고) ▲임제곤(부산과학대)
▲조용성(사직고)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강성우(호남대) ▲이종환(우석대) ▲최종건(UCLA)
▲황성환(대건고) ▲박선규(반포고) ▲서연호(한국항공대)
▲오진영(천안중앙고) ▲김현진(법철)동국대 ▲김범태(화홍고)
▲김지효(경동대) ▲정선호(동명정보대) ▲김범진(동아대)
▲최예련(서인천고) ▲김태우(부산대) ▲남우열(주성대)
- 석사과정 합격자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한국 총장 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 511-1080, 2026



화성 용주사 성도재일 철야정진법회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동장군의 기세가 다시 살아난 1월 21일 저녁 7시. 짙은 어둠이 내린 천년고찰 화성 용주사의 경내는 평소와는 다른 엄숙함으로 가득 찼다. 일주문에서 천보루까지의 무명을 헤치며 도착한 대웅보전 앞마당에는 팔각연등이 100여 사부대중을 품고 있었다.

성도재일(음력 12.8)을 하루 앞두고 철야정진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 법복 차림을 한 채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끝 · 발끝 신체 어느 부위라 특정 지을 것 없이 그저 춥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위는 고통스러웠으나 대중 모두 부처님 고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불~! 법~! 승~!"

머리 위에 떠있는 연등에 불이 밝혀졌다. "와~!" 불자들의 고요한 탄성으로 나온 하얀 입김은 천연드라이아이스로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주지 정호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하나의 불씨가 이어져 또 다른 연등을 밝히고, 온 세상의 불을 밝혀 온 세상이 밝아지듯 내 마음을 밝힘은 내 가정 · 이웃 · 나라의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6년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1주일간 선정삼매에 있던 중 샛별을 보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음력 12월 8일, 내일입니다."

거센 바람이 일순간 멈췄다. 불자들의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들었다.

"존재에 대한 모든 인식은 마음에 투영된 상입니다. 희로애락, 옳고 그름 등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한 인식, 상(相)입니다. 부처님 말씀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것, 수행의 방법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단계를 정해 놓는 것도 '구속'입니다."

정호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연등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불자들이 직접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각을 일으키기 전, 듣고 생각하는 나를 잘 관찰하라"며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참선수행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어 존재의 실상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의 법문은 불자들에게 불퇴전의 용기를 북돋기에 충분했다.

정호 스님과 대중스님을 선두로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세존사리탑을 돌기 시작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정근기도는 한파로 얼어붙어있던 대지를 깨우고 기세등등하던 동장군을 한발 물러서게 했다.

연등 밝히듯 직접 수행… 화두로 존재 실상 깨닫길
매년 성도재일 특별법회와 철야정진 이어와

대중은 본격적인 참선정진을 위해 효행교육원으로 이동했다. 구도의 길이 바쁜 이들에게는 쉬는 시간도 아까운 법. 도반들의 대화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벌써 수행 삼매에 들어간 이들이 보였다.

서울 잠실에서 왔다는 부부 참가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정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부는 "부처님 6년 고행에 비하면 오늘 하루 잠시 철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수행의지를 밝혔다. 두 자녀의 대학입시기도와 천도재 기도로 본격적인 수행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지혜의 광명을 밝힐 것을 발원했다. 남편 대명 거사는 "부처님의 가피와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일궈 살아오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금생에는 출가하지 못했으나 내생에는 출가해 큰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감로화 보살님은 "회향을 잘 하고 싶어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보현행십대원'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을 발원하고 있어요"라고 화답하듯 말했다.

참선정진은 본래 중앙선원에서 공부 중인 스님들이 지도하기로 돼 있었다. 저녁 9시가 되자 예정에 없던 정호 스님이 교육원으로 들어왔다. 교육에 앞서 정호 스님은 "아이고~ 금년에는 홍보가 덜 됐나. 신심이 떨어졌나. 왜 이리 적어. 참선 수행법이 가장 수승한 법인데도 믿지 않고 괜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문 듣고 한번 잘~해봐요" 라며 걱정과 당부가 섞인 말로 격려했다. 불교 4대 명절인 성도재일은 불자들의 수행에 더없이 소중한 날이다. 이에 용주사는 매년 성도재일 특별법회와 철야정진을 성대히 열어 매년 200~300여 신도들의 수행열기로 넘쳐났었다. 그러나 올해는 부쩍 줄었다는 후문이다.

정호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꼼꼼히 설명하며 "'자세'의 요체는 힘을 빼는데 있으며, '생각'은 정미롭게 하되, 의심은 놓지 않아야 한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힘을 들이는 것 또한 아니니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참선 정진은 성도재일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허리가 펴지지 않는 70대 노보살님들은 구부정한 자세에 어찌 견디나 싶어 보였다. "보살님, 허리가 불편하지 않으세요?"라는 우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라 행할 뿐"이라고 대답하는 보살님들 눈빛에서 '동트는 새벽 별빛'이 반짝였다. 대웅보전 앞에는 붉은 연등이 화로의 숯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불자들의 마음에 이 열기가 퍼지기를 기대하며 동장군과 함께 동동거리며 길을 나섰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00여 불자들이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정호 스님에게 참선의 자세 등을 교육받고 있다.

'붓다'의 선물! 물 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보리수 반신욕

온 식구가 평생 쓰는 반신욕! 산림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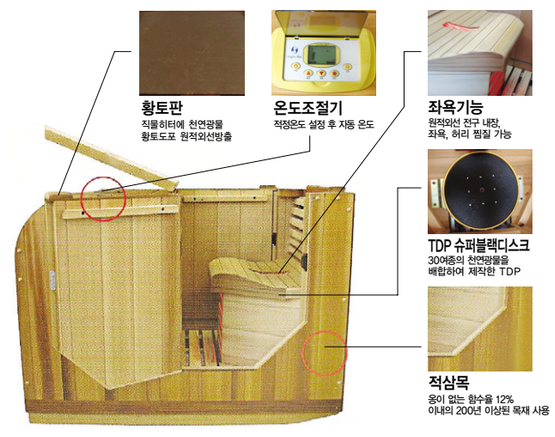
물 필요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반신욕!! 상체는 차갑게, 하체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두한족열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웰빙 반신욕. 심신을 맑고 밝게 더 향기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반신욕으로 건강한 성불 하세요.
· 순금붓다 반신욕 3,650,000 ⇨ '2대 한정'
· 보리수 반신욕
~~2,530,000~~ → 198만원 ⇨ '30대한정'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
·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
·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직업.
· 노인 및 신체가 허약하신 분.

지역별 취급점. 소개 딜러 모집

구조 절약! 한달 전기료 5천원



※ 200년 이상 된 적삼목 · 피톤치드 ※

설치·문의 02)418-1234 http://www.halfbath.kr 직접 만나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웃 종교 RELIGION

아이티 돕기 종교계 앞장서

가톨릭 미화 5만불 우선 지원, 원불교 구호대 급파 등

최근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이티 국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팔을 걷고 동참에 나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는 국내 최대 천주교 NGO 단체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사장 김운회 주교)를 통해 긴급 구호자금 미화 5만 달러를 아이티에 우선 지원했다. 전달된 구호자금은 한국카리타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국제 카리타스에 전달, 아이티 지역의 재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전국 16개 교구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특별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석 추기경은 "지진 참사로 수많은 아이티 국민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피해지역 장기 복구사업을 위한 모금활동과 기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불교(교정원장 김주원)는 2009년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족한 원불교재해재난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 아이티 구호활동 준비에 착수했다.

구호대는 1월 16일 서울회관 4층 회의실에서 아이티 구호활동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원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구호대는 아이티 현지의 피해상황 및 긴급구호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0일 현장조사팀을 파견, 이후 2월 중 본대를 파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 교단적 모금운동도 전개 중이다.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는 15일부터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운동에 나서 19일 현재 20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는 1월 30일까지 1억원을 목표로 헌금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긴급지원 국제기구와 카리브해 교회협의회(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를 창구로 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열려

19일 부산 중앙성당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교회일치와 화합을 염원하며 마침기도를 하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등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2010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1월 19일 천주교 부산 중앙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해마다 세계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인 1월 18~25일 사이에 기독교인의 화합과 일치를 기원하는 일치 기도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는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일치기도회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 천주교 부산교구장인 황철수 주교, 대한성공회 부산교구장인 윤종모 대주교, NCCK 총무인 권오성 목사, 오스발도 파딜랴 교황대사와 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누가복음 구절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일치의 근간이며,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협력해야한다'로 삼았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이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해마다 1월 18~25일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도행사다.

1908년 미국의 와트슨(Paul Wattson) 신부가 창설한 교회일치주간과 프랑스의 쿠튀리에(Courturier) 신부가 제창한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에 기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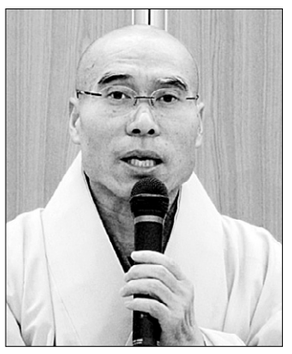
쿠튀리에는 1935년 일치주간을 전세계적인 기도주간으로 발전시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선택한 종교를 통해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공회에서도 교회일치주간과 관련 단체들을 발전시키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전신인 신앙직제운동 역시 1920년대부터 성신강림축일에 맞추어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을 발전시켰다.

이후 로마교황청 · 동방정교회 · 성공회 ·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나은 기자

사찰에 복지노하우 전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업계획 발표

창립 15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이 사회적 소통과 화합의 실천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대오 스님.

복지재단은 1월 20일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재단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오 스님은 "복지재단은 창립 15년 만에 국내 단일 법인으로는 최대 규모인 메이저급 법인으로 성장했다"며 "복지재단의 노하우와 저력을 종단과 사찰 · 신도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한해 동안 복지재단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모토로 불교사회복지의 선도화와 내 · 외적 향상, 자원봉사의 생활화, 인재불사, 전수조사를 통한 좌표 설정 등 6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복지재단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해 불교사회복지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오 스님은 "사찰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며 사찰 사회복지참여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복지재단은 본 · 말사 주지스님 연수교육 등을 활용하는 한편, 개별 사찰마다 사회복지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연찬회 등을 열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130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확대도 계속된다. 복지재단은 1월 중 종로와 중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 · 4월에는 고양행신그린 어린이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해 포교활동의 전초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국내 이주민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다문화축제개최, 모국(친정)방문 지원 및 생계 · 양육비 지원 결연후원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눈에 띈다.

복지재단은 1995년 재단 설립이후 교계 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직할봉사단 육성, 1사찰 1자원봉사센터 개설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교계 상 ·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염불자원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100여 명의 염불봉사자를 추가로 양성, 상시 파견체제를 구축해 요일과 장소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곡사를 비롯해 교구본사 3곳에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신도들을 통해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 나간다.

복지재단은 지난 해 국가법령에 의해 종교계 최초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10회에 걸쳐 800여 산하 시설 종사자를 교육시켰다. 올해는 교계 주요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20회 동안 1600여 교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불교사회복지 인재불사에 진력을 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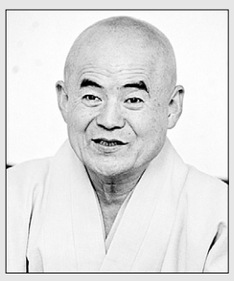
또한 복지재단은 정신 · 심리적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강점을 살려 정신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 전문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2009년 대비 4만6000명이 증가돼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단은 자비나눔 실천활동을 확산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 1만원의 후원자 1만 명을 모집하는 후원회 '만원의 행복'을 결성해 재정적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 몸뚱이는 내 것 아니야"

장기기증 릴레이 첫 주자 혜국 스님



"잠깐 동안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부터 빌려 쓰다가 그 쓸모 없는 것을 누군가가 쓸모 있게 써 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장기기증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장기 · 시신 기증을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불교계에 장기기증 관련 기관이 없었다면 스님의 행색으로 기독교, 천주교 단체를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불교계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진행하는 장기기증 행복릴레이 '함께해요, 생명나눔'의 첫 번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인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사진)은 불자들에게 장기기증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장기기증을 생각했다는 스님은 "사람이 나고 죽으면 결국 땅이나 불속에 기증하는데 누군가가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연비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내가 없어지고 부처님만 남아있는 느낌을 순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후로 혜국 스님은 "연비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내가 없어지고 부처님만 남아있는 느낌을 순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후로 화장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스님은 "화장문화는 한 몸뚱이 태우기 위해 많은 사람의 수고는 물론 수십년을 자라야 그만한 나무가 되는 화장목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며 "스님들의 장례문화가 호화롭지 않기 위해서 장기 · 시신기증을 의무적으로 서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교계 노인복지시설 괄목 성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월 13일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평가 시설 4개 유형 중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도에 비해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관 11곳, 종합사회복지관 12곳이 불교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부문에서 불교계 시설 22곳 중 11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불교계의 노인복지관 운영이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한 시설부문이 있다. 모자보호, 모자자립,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부문으로 불교계는 80곳 가운데 2곳 밖에 운영하지 않는 등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나은 기자

#노인종합복지관부문 최우수기관=
광진노인복지관, 구로노인복지관, 남양주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북노인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원미구노인복지회관, 은평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부문 최우수기관=
개금종합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 남구종합복지관, 본동종합복지관, 부곡종합복지관, 용문종합복지관, 용호종합복지관, 원주명륜종합복지관, 지산종합복지관, 하남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한솔종합복지관.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들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 금강사 기로원 입소자 모집

실 버 타 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방1개, 베란다, 욕실)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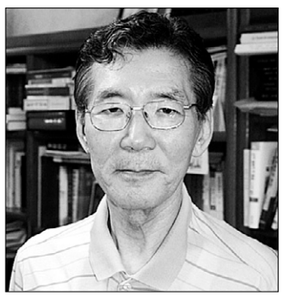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존재와 소유 혼용 하나 서로 달라

김형효 명예교수 '존재와 소유' 주제 특강 2월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서

동 · 서양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불교사상을 풀이해 온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존재와 소유'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형효 명예교수(사진)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의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3기 세 번째 시리즈에 강사로 참여해 1월 23일~2월 27일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강연한다.



첫 번째 강좌인 23일, 김 명예교수는 '존재와 소유의 관계-부일이부동(不一而不二)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욕망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구분하고, 동 · 식물이 먹이를 취하는 것이 소유욕인지 존재하려는 욕망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풀어냈다.

김 명예교수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서 '존재하다'와 '소유하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존재와 소유의 혼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존재론적인 욕망과 소유론적인 욕망이 나뉘어지는 까닭과 의식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30일 열리는 두 번째 강좌에서 김형효 명예교수는 '사회적 지능과 자연적 본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김 명예교수는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미약한 갈대,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은 인간 지능의 위대함을 표현한 것"이라며 "지능은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 따른 산물이지만 본능은 자연적 생존방식의 방편"이라고 강연한다. 이어 김형효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문명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던 역사의식을 고수했으나, 현재 인류는 자연친화적 생활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문명의 큰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월 6일, 김 명예교수의 세 번째 강좌는 '존재자적 형이상학과 존재의 사유'를 주제로 진행된다.

'존재의 사유'는 독일의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사유는 주어가 목적어를 대상화해 맹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 분리이전의 상태에서 마음이 마음을 머금는 행위와 같으며, 존재의 사유는 존재가 존재를 머금는 행위와 같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동 · 서양 철학사가 거의 모두 존재자 중심의 형이상학으로, 과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보(相補)하는 관계였음을 설명한다.

20일, 김형효 명예교수는 네 번째 강좌 '놀이하는 마음'에서 "인간과 자연은 모두 놀이를 한다"며 "놀이하는 마음은 대긍정의 마음이고, 무심(無心) · 무아(無我)의 마음이다"라고 강연한다.

김 명예교수는 "우주적 선을 증장시키는 것은 선이 악의 씨를 뿌리 뽑기 위해 악을 공격하고 악을 절멸시키려는 마음이 아닌 악과 함께 노닐려는 마음"이라며 "악과 더불어 노닌다는 것은 악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악심의 예기를 꺾고 놀이에 몰입한 악심이 스스로 악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27일 열리는 다섯 번째 강좌에서는 박창국 서울대 교수, 장승구 세명대 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김형효 명예교수와 강연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강좌 시작에 앞서 "'존재'와 '소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존재'와 '소유'의 두 원칙은 인간에게 공(空)의 도리와 무(無)의 허허로움을 인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의 강좌는 인문강좌 홈페이지(hlectures.nrf.go.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서비스된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과 일요일 오전 9시, 수 · 목요일 오후 5시에 방송대학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한국의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석학들이 일생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공개 강연을 통해 관련분야 학자, 지식인,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도록 소개하고, 해당 주제를 타분야 학자 ·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해 한국학계와 후학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통해 인문학과 인접 학문분야의 국내 최고학자 10인을 초청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 강연자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5주씩 공개강좌를 실시해왔다. (02)739-1223

조동섭 기자

국외 반출 문화재는 10만 여점

국립문화재硏 국외 한국문화재 목록화 작업 결과 발표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가 10만 여점에 이르고, 이들 문화재가 세계 18개국 347개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의 현황파악을 위해 한국 문화재 목록화 작업 등 학술조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외 한국문화재 수가 7만6143점에서 3만1000여 점 늘어난 10만7857점으로 확인됐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년여에 걸쳐 국제교류재단, 한국서지학회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취합하고,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 문화재 목록화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확인작업은 언론 보도 등 수량만 알려진 것들을 제외하고, 현지조사와 도록, 소장처 제공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집계해 정확성을 더했다.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수가 3만여 점 늘어난 10만 여점으로 밝혀진 데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돼 온 일본 · 미국지역 전적류 조사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국 문화재는 일본이 동경국립박물관 등에 6만1000여 점을 갖고 있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2만7000여 점), 중국(4000여 점), 영국(3700여 점), 러시아(2600여 점), 독일과 프랑스가 2000여 점 순이었다.

특히 일본은 이제까지 3만500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6만 2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종류별로는 고고미술품이 5만4000여 점, 전적류가 5만3000여 점 등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박대남 학예연구관은 "이번 통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외규장각도서 등 약탈문화재를 비롯해 1900년대를 전후해 정상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반출된 유물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영국·호주 '직지 최고 금속활자'

반크, 英 중앙도서관·호주 머큐리박물관에 등록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단장 박기태)의 노력으로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에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물"이라는 사실이 게재됐다.

반크는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이 최근 '홈페이지에 <직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다'는 편지를 각각 보내왔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

반크는 2007년부터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함께 해외 인쇄박물관과 도서관, 백과사전 등을 대상으로 <직지>의 가치를 바로 알리는 '직지 세계화 사업'을 펼쳐왔다.

반크는 세계 주요 박물관 · 도서관 등이 금속활자를 소개하면서 <직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등에 "<직지>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임을 편지로 알렸다.

그 결과,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은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1377년 한국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불교 서적"이라는 내용을 각각 홈페이지에 반영키로 했다.

반크는 "이번에 시정한 도서관, 박물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및 인쇄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크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 미국판에 '직지'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임을 게재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위키디피아' 포르투갈어판에도 '직지'와 관련한 내용을 올렸다.

조동섭 기자

학술 문화재 소식

진흥원 '세상을 위한 불교' 강연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11일 오전 11시부터 마포 다포빌딩 대법당에서 경인년 신년 대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상을 위한 불교, E-GREEN BUDDHA의 세계로!'를 주제로 오늘날 불교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법문이 열린다.

법회 첫날인 1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시작으로 2일에는 정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3일에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4일에는 지운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학장)이, 5일에는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법문한다.

이어 8일에는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가, 9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10일에는 박영재 서강대 교수가 법문하며, 11일에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법문을 끝으로 회향한다. (02)703-0108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7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이하 연구원)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7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연구원이 지난해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 '사찰재정 관리 방안 연구'(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찰경영의 성공적 사례와 불교교단적 함의'(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대만 자제공덕회의 지향과 체계'(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 대표) 등이 수록됐다.

한편, <선문화연구>는 구랍 25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봄 논문발표회' '인도철학' 논문 모집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031-980-7775)와 인도철학회(회장 법산, 010-7377-4278)는 각각 '봄 논문발표회'와 <인도철학> 제28집에 발표 ·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불교학연구회의 봄 논문 발표회는 3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논문 발표 신청자는 1월 31일까지 논문계획서를 학회 메일(bulgyohak@yahoo.co.kr)로 보내면 된다.

<인도철학> 제28집은 2월 28일 발간 예정이다. 논문 투고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 1월 28일까지 제출하면, 편당 2~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확정된다.

조동섭 기자

교수불자련 '사찰환경개선' 세미나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는 2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진외국사찰 환경비교를 통한 국내사찰 환경개선의 대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20-6618

조동섭 기자



조계사 대웅전 영구위패 봉안 불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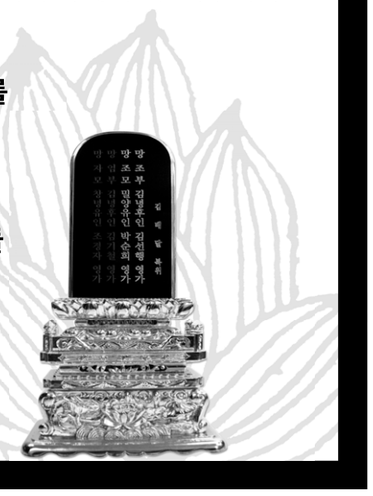
전법수행도량이자 기도영험도량으로 불자님들의 편안한 귀의처가 되고 있는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선망부모조상영가를 대웅전 안에 특별히 장엄한 영단의 영구 위패에 모시고 매일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하고, 축원해드리고, 재(齋)가 있을 때마다 공양을 베풀어드리며, 또한 법회시마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려주어, 영가가 더 이상 업보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바른길에 들어 극락세계에 왕생토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자님들께서는 조계사 조상영가 영구위패 봉안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조상님들과 유주무주 고혼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원성취하시며 무량공덕 이루시어 구경성불하시기 바라옵니다.

※ 영구위패란에 모셔진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음력 초하루마다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 위패 1위에 3대까지 모셔드립니다.

※ 살아생전에 위패를 미리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름을 각인하여 모셔둘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732-2115
팩 스 : 02-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일주문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2월 25일 개최하는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7-0467



남도 3사 내나라여행 박람회 법고시연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월 27~30일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송광사 · 대흥사 · 화엄사 등 남도 3사의 법고 시연회를 펼친다.



봉은사, 고 백남준 4주기 추모제

강남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월 29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故 백남준 선생의 4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상도선원 간화선 집중수행

서울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은 상도선원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1월 28일까지 간화선 집중수행을 봉행한다.



東大 총동창회 자승 스님 초청 강연

이연택 東大 총동창회장은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교단자정센터 대표 취임 기자회견

김원보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표는 1월 2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교단자정센터 신임대표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東大, 의사국가시험 전원합격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심재철 학장은 2010년 제74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의학과 4학년 재학생 55명 전원이 최종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 東大, 의료원장 · 불교대학장 등 교체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월 18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장애순 △사업개발본부장 위태량 △입학처장 이윤호 △정보관리실장 안종석 △경영기획팀장 유광호 △총괄지원팀장 김범중 △구매팀장 김종기 △재무회계팀장 김태식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행정지원센터장 박혁상 △정보기획팀장 문상국 △정보운영팀장 이국환 △교무팀장 김영훈 △학생서비스팀장 류변성 △입학관리팀장 겸 입학사정관실장 김성근 △불교대학원 및 불교대학 학사운영실장 박군서 △법무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 오광진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장 한문우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학사운영실장 박광호 △영상대학원 및 영상미디어대학 학사운영실장 박동수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이천종 △의학계열 학사운영실장 주현석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장 박세훈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장 박승종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문용주

"종단 거듭나기 위해 문화 집결 필요"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 신년기자회견서 문화 · 포교 중점 추진 발표

진각종이 올 한해 문화 · 포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월 19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종단 중점사업이 '문화집결'에 있음을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참회의 정신으로 신행의 바탕을 세우고, 정도의 수행을 회향하는 희사의 정신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진각문화전승원 건립 등 총인원 성역화의 과업을 마무리하고 문화포교사업에 종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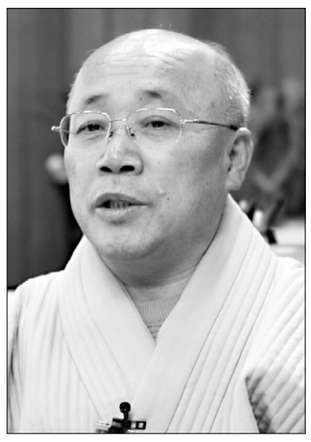
혜정 정사는 "진각종 창종 이후 위덕대 창설 등 교육 집결을, 만월회 등 복지재단으로 복지 집결을 꾀했다면 향후 종단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 집결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진각종과 밀교를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건립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총인원 성역화의 핵심인 진각문화전승원은 6층 규모로 현재 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태다. 진각종은 올 11월~내년 봄까지 실내외 공사와 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장경전시실 등을 통해 각종 유물 전시와 공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종조 탄생지(울릉도 금강원), 성도지(대구 최정심인당), 최초 설법지(포항 이송정), 열반지(대구 불승심인당) 등 사성지 성역화도 본격 추진된다. 2010년에는 포항 이송정에 육각정자 · 기념비가 건립되며 최정심인당과 불승심인당에는 특성화 교화활동이 진행된다.

종단 성역화 및 종조 선양사업과 더불어 복지 · 포교분야에서 밀교 대중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혜정 통리원장은 복지분야에 대해 "자립도를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받는 위탁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직영체제로의 변모를 시사했다. 지난해 종단 직영 진각복지센터가 마련돼 본 궤도에 오름에 따라 장례서비스 체계와 상조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만월회 배가를 통해 복지법인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것.



혜정 정사.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진각복지연구소 개설, 불교사회복지도서관 개관, 취약계층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도 추진된다.

포교 분야에서는 가칭 미디어포교위원회를 구성해 밀교수행을 영상으로 제작, 보다 적극적인 교화활동에 나서는 한편 기존 일선심인당의 자성동이 프로그램, 여름수련캠프, 스키캠프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선다. 또 진주와 경주, 산내에 개설된 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 개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술 ·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폐엽경 한글화 작업 및 종조어록 다언어 출간, 밀교 용어풀이 간행물 출간 등이 진행되며 상설기구인 국제밀교문화교류체가 구성돼 밀교국가간 교류 · 협력도 증진해 나간다.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올 한 해를 종단 60년의 새 디딤돌을 놓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취임 시 발표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단 내실과 안정을 꾀해 속이 알찬 종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혜정정사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6개월간 전국 심인당을 방문해 교화 활동 등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신년하례 법회 봉행 (재)일붕선교종



1월 20일 봉행된 (재)일붕선교종 신년하례법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1월 20일 인천 호불사에서 '경인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화엄, 원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경원, 일붕문도회 전 회장 도기, 사서실장 혜천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종단 업무에 충실히 해 온 총무부장 용운, 교육부장 법해 스님에게 공로패가, 서울 수도암 광명심 원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종책도 종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종단협 상임이사 종단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경인년이 되자"고 당부했다. (02)998-8161

"불교 중흥 위해 종무원이 나서 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과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종무원들이 일심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거행된 중앙종무기관 · 산하단체 종무원 조회에서 150여 종무원들에게 "불교중흥의 시작은 종무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자승 스님의 당부와 함께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브리핑이 진행됐다. 각 부처는 △1월 19일 국팀장 회의 △1월 28일 4개년 실행계획서 작성(과제별 4개년 실행계획 마련) △2월 5일 실행계획서 완료및 과제 점검 △2월 9일 종무회의 실행계획서 보고 △2월 이후 매월 핵심 및 주요과제 점검 및 추진경과 보고 △2월 불기 2554년도 추경예산 편성 △184회 임시중앙종회(결산종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등 이날 공개된 일정에 따라 4개년 발전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소통기회 늘려 화합 · 상생 경인"

東大, 신임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

"출가자(교수)에게 소임(보직)은 한때 지나는 소나기 같은 것입니다. 출가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학장 업무를 여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동국대 신임 불교대학 · 대학원장 계환 스님(사진)은 1월 18일 임명장 수령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이 날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종립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최일선에서 구현하는 불교대학의 행정책임자가 됐다.

계환 스님은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학생 · 교수 · 직원 등 구성원의 화합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불교대학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구성원끼리 화합하지 않으면 성과가 좋을 수도 없고, 좋더라도 부질없는 것"이라면서 "나부터 하심(下心)해 구성원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학도 경쟁사회가 돼버린 지금, 평가를 비교당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계환 스님은 "교수의 연구업적 등이 곧 불교대학의 경쟁력이다. 특히 교수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환 스님은 "학생들의 학업능률 향상과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 ·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운문사 강원 대교과 수료 후 도일(渡日)해 일본 화원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경도불교대에서 석 · 박사 과정 동안 중국불교를 전공한 학승이다. 그래서인지 계환 스님은 학생들의 견문 확대와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산 속의 사람은 산을 볼 수 없다, 안목이 커지면 마음도 넓어진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계환 스님은 교수의 해외연수 참여 기회와 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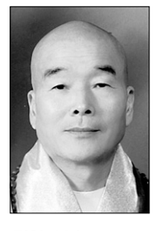
또, 스님은 "불교계의 당면 문제는 인재부족으로 귀결된다"며 "불교대학원 CEO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불교계 리더를 발굴 ·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불교계의 인재 가뭄을 해소하는 한편 동국대와 불교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계환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한국불교학의 산실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동문들이 교계 곳곳에서 불교계 리더로 큰일을 하고 있는 만큼, 불교대학 구성원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 건학이념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대학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려면 불교계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한불교선각종



정암 스님.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월 1일 광주 미륵사 불교문화원에서 소년소녀 가장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작년 12월 12일 광주 미륵사(주지 목언)와 원불교 창평 교당의 일일찻집 모금 등으로 마련된 이날 장학금은 창평 원불교 소속 김창평 군, 무등산 미륵사 소속 김태균, 송은민, 고영욱 이상 4명에게 각각 50만원, 옴천초 김효진, 조우대 군 등 2명에게 각 25만원 씩 지급됐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Ⅰ (범패의전승계보)	범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Ⅱ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 수 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불교학, 음악, 무용)
(2)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 (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3)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4부
(4)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학문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세종시 수정안 종교계도 반발

성명서 내고 세종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할 것 촉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월 11일 이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계가 성명을 내고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지역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은 1월 15일 청주 수동성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20일에는 '충북 종교인,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서에서 "세종시 수정안에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주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계획된 세종시가 결국 토지 헐값 매각과 대기업 특혜로 지방과 주변지역의 기업과 자원을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1월 11일 청주 수동성당에서 열린 충북종교지도자 성명서 발표 모습.

종교지도자들은 "세종시 문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쌍방향 소통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정부는 지역민을 이해와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200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수도이전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안이 노 前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를 충청권의 표를 얻는데 이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안대로 갈 줄 알았던 세종시가 문제화 돼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이다. 뇌관을 터뜨린 것은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때 입각한 정 총리는 총리후보 시절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 가시화 됐고 민심의 반발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삼성 등 등 교육?과학?산업 각 분야의 기관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함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은 종교편향 등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골을 새기고 있다. 야당과 여권 일부, 시민단체에 이어 충북지역 종교지도자까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선주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1000개 우물에 넘치는 생명사랑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우물 기증, 생명공양 뜻 새겨

일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라는 1월의 캄보디아는 30도가 넘는 태양열로 인해 물이 점차 말라가는 건기의 한 중간이다. 건기가 시작 된 지는 두 달 남짓, 아직까지는 물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식수로 쓰기에 적합한 깨끗한 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 정도이다.

캄보디아의 농촌 마을은 집집마다 입구에 물웅덩이를 파놓는 게 특징이다.

이 웅덩이에 우기에는 물이 차고, 건기면 물이 마른다. 이 물은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캄보디아 농촌 주민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웅덩이지만, 이 물은 주민들에게 식수로 이용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식수를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물고기도 잡히고, 아이들과, 오리, 돼지 같은 가축들의 물놀이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보니 캄보디아의 농촌에는 물로 인한 전염병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1일 오전,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 스님)가 주관하는 우물 지원 사업이 한 획을 긋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프놈펜 남쪽 따께우주와 깜폿주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앙꼬르쩨이 마을의 찌아심 앙코르쩨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역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1000번째 우물의 기증식이 그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이 사업의 후원자들인 월주 큰스님,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 일화 스님(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종후 스님(북한산 노적사 주지), 일감 스님(금산사 수련원장), 혜진 스님(지구촌공생회 해외사업단장) 등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 탤런트 전원주, 선우용녀(이상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씨, 소설가 남지심씨 등 30여 명이 함께 하고, 쩨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과 스레이 벤 따께오 주지사, 코이 쿤 후오 깜폿 주지사, 이경수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김병관 KOICA소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까지 지구촌공생회는 2005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따께우주에 485곳, 깜폿주에 515곳의 우물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기증했으며, 크나이 공생초등학교, 따 띠엔 영화초등학교, 앙코르쩨이 공생유치원, 끄랑야으 공생유치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 사업에도 헌신해왔다.

기념사에서 월주 스님은 "고통 받는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2005년부터 식수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캄보디아에서의 1000번째 우물기증식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길러주고 있다.

올해 1000여 기에 이르렀다. 지구촌공생회 임직원, 자원봉사자, 현지 활동가, 홍보대사, 후원자들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러한 생명의 우물 사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를 바란다"며 "오늘날의 지구촌은 인류 공동체로서 이웃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아서 이를 섭수하고 나누는 동체대비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대사는 "한국 정부는 농촌개발프로젝트로 캄보디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고, 학교, 의료, 보건 개선 등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성공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쩨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해서 월주 큰스님과 전근수 지구촌공생회 지부장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지구촌공생회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1000번째 우물의 기증식으로 끝을 맺었는데, 우물에는 1000번째 기증자인 송명례(72)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서, 생명 공양의 아름다운 뜻을 기렸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네팔과 아프리카의 케냐 등 7개국에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사제공=장연수(캄보디아왕국 승왕 보좌관)

템플스테이 관광사업 계획

충남, '대충청방문의 해' 맞아 발표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사찰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관광사업을 펼친다"고 1월 11일 발표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템플스테이 특별이벤트 사업의 하나로 천안 공주 서산 논산 예산 등 5개 시군에 각 2000만 원씩 1억 원의 관광 상품 개발 사업비를 투입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플러스원(+1)'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 현재 해당 시 · 군 주관으로 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템플스테이 상품에다 사찰의 특성을 살린 색다른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주변 관광자원, 타 종교성지 및 역사문화체험 상품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템플스테이 체험과 차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자, 본 사업 전반에 전문여행사 등을 적극 활용, 7개 사찰에 체험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2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밖에도 국문 및 영문의 템플스테이 홍보책자를 발간 · 배포해 충남도내 템플스테이 우수성을 알릴 계획도 세웠다.

충남도는 작년에 개관한 공주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과 함께 올 7월 준공예정인 부여 롯데콘도, 공주 숙박촌 및 8개 템플스테이 사찰을 잘 활용하면 이벤트 행사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은 "2010년은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1) 등 23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세계 대백제전', '충남 민속 문화의 해', '보령머드축제' 등 200여개의 크고 작은 풍성한 행사, 축제(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해인만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다른 사업이 상호 연계하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감으로써 관광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는 마곡사, 수덕사, 갑사, 부석사, 영평사, 지장정사, 서광사, 광덕사 등 8개 사찰이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

17일, 대혜 스님 출판 기념회 봉행


1월 17일 성산회관에서 봉행된 대혜 스님의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혜 스님(구미 원각사 주지)의 불교에세이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의 출판기념회가 1월 17일 구미 선산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조계종 각 교구 주지스님을 비롯해 지역유관 단체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대혜 스님은 법등 스님(도리사 주지)에게 책을 봉정하고 참석자들에게 군 법당과 교도소에 책을 보내기 위한 후원도 받았다.

또, 노래로 포교하는 도신 스님이 신촌블루스 출신 밴드 '색즉시공'과 함께 음성공양을 펼치며 출판기념회의 흥을 돋아 눈길을 끌었다.

대혜 스님이 펴낸 불교 에세이 <부처님은 영원한 동반자이시며>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발견한 스님의 체험적 불교관이 진솔하고 담담한 필치로 담겨 있다.

스님은 1987년 경주에 전국 최초의 불교문화원을 개원해 불교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직지사 포교국장과 선산 원각사 주지 등을 맡으며 어린이, 학생법회 등에 매진해왔다.

한편, 구미 원각사는 대혜 스님의 출판기념회에 이어 사찰 봉사단체인 '자비봉사회' 출범식을 갖고 매달 정기적인 어르신 무료 급식과 반찬 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예술문화공간 사찰 생겨

수덕사 미술관 3월 중 개관

조계종 교구본사로는 처음 예천 수덕사(주지 옹산)에 미술관이 들어서, 종교적 공간을 초월한 예술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찰을 선보인다.

수덕사 미술관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구택을 옛 전통과 현대적 미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140평 규모이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최근 "종교적 공간인 사찰을 대중 친화적인 예술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미술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미술을 통해 대중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덕사 관계자는 "3월 미술관 개관과 함께 경인년을 기념한 호랑이 그림전을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역경학과 신설 동방대 신입생 모집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이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 승가학과 · 범패학과 · 역경학과(이상 2년제)와 불교미술학과(3년제)이다. 특히 역경학과는 한역불전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를 통한 불교 교리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경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동방불교대학은 출 · 재가자 모두 수학이 가능하며, 입학원서는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 인터넷(www.dongbang.org)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02)745-2030 조동섭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가슴으로 배우는 우리 불교문화

대한불교교사대학, 전남 8대사찰 답사여행

1박2일 동안 8곳의 사찰을 답사하는 것이 시간 및 체력면에서 가능할까? 그저 둘러보는 구경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나가는 답사여행이라고 하면 분명 무모한 도전이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불교문화를 가슴으로 배우겠다는 신심과 어린이들에게 우리 시대의 불교문화유산을 바르게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전라도의 8개 사찰을 쉴 틈 없이 누볐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한 도전하는 이들은 바로 동련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범어사 주지)의 당찬 학생들이다.


대한불교교사대학 대중들은 1월 6일 송광사 대웅보전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대한불교교사대학은 1월 6~7일 전라도 8대 고찰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제11기 학생들의 졸업여행을 위해 기획한 이번 여행은 선암사를 시작으로 송광사, 쌍봉사, 운주사, 화엄사, 연곡사, 쌍계사, 칠불사 등 사찰 8곳을 답사했다.

새벽 6시, 첫 번째 목적지인 선암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침예불을 올렸다. 이어 오늘 답사하게 될 사찰에 관한 돌발퀴즈로 예습을 하기도 했다. 오전 9시, 첫 답사지인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의 인솔자로 나선 김광호 부학장은 학생들에게 선암사의 답사포인트로 독특한 경내 구조와 원통전의 아름다운 문살, 태고종 고유의 이색적 정취를 눈여겨 볼 것을 권했다.

김광호 부학장은 "우리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답사, 견학, 학습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강의실에 앉아 책으로만 배워온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만져보고, 밟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에서는 담장과 이어진 독특한 일주문과 영가들의 관욕소인 세월각과 쳐주당 등을 살펴봤다. 현재 동안거 중인 스님들이 경내를 오가는 모습에서 실제 스님들의 수행분위기와 삶의 숨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사찰인 쌍봉사(주지 영제)에서는 갑작스런 화재로 불에 타 소실돼 복원불사를 한 지장전을 중심으로 답사했다. "현대의 국내 단청 채색 기술로는 원형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스님의 설명에는 다들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을 이용해 정교하게 끼워 맞춘 석축에 감탄하기도 했다.

오후 4시,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인 천불천탑의 성지 운주사(주지 정행)에 도착했다. 절 입구부터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석탑과 석불이 늘어선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현재 석불 93구, 석탑 21기만이 남아있지만, 그마저 빠르게 훼손되고 있음에 안타까워했다. 거대한 와불 앞에서 찬불가 '석가모니불'을 큰 소리로 합창했다.

답사단 중 가장 먼 대구에서 참가한 오가정(대구 보림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씨는 "항상 대한불교교사대학의 학생임이 자랑스러워 10기 수료 후 11기에 재입학해 이번 졸업여행도 동참하게 됐다"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도 답사단의 열혈 참배는 계속됐다. 다섯 번째 답사지인 적멸보궁 화엄사(주지 종삼)에 들어서자 단박에 일주문의 독특한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 어제 배운 송광사의 일주문처럼 담장이 연결돼 있어, '일주삼칸'이라 불리는 범어사 일주문과는 확실히 다르다. 전문 문화해설사 2명이 동행해,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서 갖춰야할 화엄사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꼼꼼히 배웠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각황전과 석등, 사사자삼층석탑 등의 문화유산은 그 유래와 구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배웠다.

여섯 번째 답사사찰인 연곡사(주지 종지)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보 및 보물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국보로 지정된 동부도와 북부도 및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 현각선사탑비, 서부도, 동부도비 등을 문화재해설사를 통해 배웠다.

이어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조실 고산)에서 국보인 진감국사 대공탑비와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부도, 팔상전의 영산회상도와 함께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청학루, 마애불 등을 답사했다. 특히, '쌍계석문'이라 새겨진 고운 최치원의 글도 눈여겨 관찰했다.

끝으로 하동 칠불사(주지 통광)에서 세계건축대사전에 등재된 독특한 구조의 아자방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만끽하며 답사여행은 끝났다.

김광호 부학장은 "향후 전라도 지역을 1차례 더 답사한 후, 경남, 경북, 강원, 경기, 북한 등 국내의 문화재를 보유한 여러 사찰들을 더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51) 852-0852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행복한 부산은 우리 손으로…"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신년 월례회 개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승실(실장 정여, 범어사 주지)은 1월 18일 홍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신년 월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경승실 경과보고, 정여 경승실장의 치사,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사, 심산 홍법사 주지 환영인사, 신년축하 떡나눔, 공지사항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경승실장 정여 스님은 "부산의 치안이 잘 이뤄져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 모든 직원의 숭고한 노력 덕분이고, 스님과 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늘 감사한다"고 치사했다.

이에 앞서 경승실 총무 성각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경승단은 경찰청에서 경승 소임을 맡은 7명의 스님 및 14개 지역구 경찰서에서 종교지도자로 활동 중인 여러 스님들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며 경찰청 경승다운 면모를 보이자"고 말했다.


1월 18일 부산 홍법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신년 월례회 모습.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한 데에 불교의 힘이 컸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기는 힘겹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스님들께서는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맡아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여 경승실장(범어사 주지), 성각 스님(월각선원장), 금종 스님(혜광사 주지),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일광 중부경찰서 경승실장(범어사 포교국장) 및 이강덕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철준 금정경찰서장, 경찰포교사회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인문학의 최고봉 불교 철학을 만나자

정해학당, '대승기신론 해동소' 개강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정해학당(원장 오경)이 2월 2일부터 <대승기신론 해동소> 강좌를 개강한다.

강의는 <대승기신론>을 짓는 이유를 설한 '인연분(因緣分)', <대승기신론>의 대의를 밝히는 '입의분(立義分)', 대의를 구체적으로 논술한 핵심 부분인 '해석분(解釋分)', 믿음을 닦아 나아가는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등 5개 단원으로 나눠 1년 여간 진행된다.

그동안 <화엄경> <유마경> <금강경> 등 강좌로 재가불자들을 경전 공부의 바다로 이끌어온 원장 오경 스님은 이번 강좌를 개설하면서 "불교를 왜 인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지, 불교 철학의 진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행활동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경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관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자 하는 지성이니라면 누구나 들으면 도움이 될 인문학적 논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시 30분~10시, 수강자는 선착순 15명에 한한다. (051) 744-5322

박지원 기자

'홀로청소년' 건강한 성장도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사장 정련)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라온'(이하 라온아카데미)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구랍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로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범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방과후 부모의 부재로 인해 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검진, 급식지원, 학습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방과후 오후 3~8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이어지며, 일주일간 교과목 학습 10시간, 국악, POP, 검도, 수영 등 선택과정 10시간, 놀토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참가생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만족도 조사와 이를 다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피드백 전략으로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매월 프로그램 안내서, 청소년의 학습평가서로 적극적인 의견을 유도해 우리 청소년들을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51)405-5223

박지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734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6층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02)2004-8200 팩스: (02)737-0697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향일암 화재 후 첫 법회 봉행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에서 화재 후 첫 법회가 봉행됐다.

향일암 사부대중은 1월 15일 법당 앞마당에서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신도들을 향해 합장한 원문 스님은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시지 못한 죄업을 불 · 보살님 전에 엎드려 참회하고 또 참회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당을 복원해 으뜸가는 관음성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한편, 구탑 20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는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진행된 4년 여 불사를 회향한지 3개월 밖에 안된 대웅보전 등을 잃게 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것은 잠시, 향일암에서는 대웅전 소실 이후에도 관음전과 용왕전, 삼성각 등 법당마다 기도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고 방문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로 서는 군산불교 도약 다짐

군산포교 중흥 · 군산발전 기원 조찬법회 봉행

단위면적당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전북 군산시 불교가 경인년을 맞아 새 도약을 다짐했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허양)는 1월 15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경인년 신년하례를 겸한 '군산발전 조찬법회'를 봉행하고 군산포교 중흥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 회장 재훈 스님과 관음사 재곤 스님, 흥천사 지환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이래범 시의장, 문원익 교육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군산불자들은 법송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 따뜻한 가슴을 지닌 불자로 생활하겠다"며 "새만금 중심인 군산시민이 화평하며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와 정진의 힘으로 신명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1월 15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서 봉행된 군산발전 조찬 법회서 군산지역 불자들은 군산불교 중흥을 다짐했다.

재훈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면 모래밭에 금을 그어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며 권세로 다스리면 만리성을 쌓아도 침범하는 자가 있다'는 의상 대사의 말씀이 있다"며 "서로 포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손잡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역 대표사찰 가운데 하나인 군산 동국사(회주 재훈 · 주지 종명)는 지역불교를 선도하는 전법도량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나섰다.

군산 동국사는 1월 17일 50여 가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동국사 일요가족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국사 대중은 매주 일요일마다 계층별 · 연령별 · 직능별 일요법회를 순차적으로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이웃종교에 비해 취약한 군산지역 불교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법회에서 동국사 회주 재훈 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치마불교라는 오명을 들어왔다"며 " 오늘 가족법회 창립을 계기로 불교의 대중화, 가족중심의 법회 활성화를 통해 기도와 수행정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음력중심의 법회를 진행하다보니 직장인과 학생들의 법회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일요가족법회의 창립을 계기로 기존의 칠성회, 금강회 등 신행모임과 군산교도소 불자모임인 수불회, 거사불자 모임인 감로회 외에 어린이 청소년법회 직장법회 등 계층별 직장직능별 일요법회를 순차적으로 창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문성을 지닌 신도조직을 활성화해서 서해 도서지역에 의료봉사, 법률자문, 이 · 미용 봉사 등을 펼쳐 불교의 대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 동국사는 군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에 창건한 국내 유일의 일본식 건물을 보유한 사찰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가불자들의 '섬 포교단' 출범

31일, 신안군 암태도서 첫 불교행사 계획

전남의 서해에 위치한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이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부처님 가르침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인 한국불교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곳 서남 해안권 도서지역의 불교활성화를 위해 재가불자들이 '섬 포교단'을 출범시켜 눈길을 끈다.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불교기획사 카일라스(대표 이진중),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파라미타 광주전남지부, 동연 광주지부 등 지역 신행단체와 공동으로 '섬 불교 포교단'을 결성하고 포교활동에 들어간다. 섬포교단은 첫 사업으로 1월 31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의료, 떡국공양, 연예인초청 공연, 미용봉사, 연지조성, 겨울불교학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열악한 신도여건으로 자체적으로 불교행사를 치를 수 없는



신안 암태도의 노만사 모습.

이곳에 광주의 재가불자들이 지역 사찰과 함께 열린불교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암태도에 하나뿐인 사찰 노만사(주지 범도)와 공동으로 암태면에 자리한 게이트볼장과 노만사에서 '노만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첫 행사를 연다.

첫 행사에 앞서 이준엽 원장은 "호남의 불교가 열악한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섬지역은 더 말할 것 없이 심각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신도나 사찰재정도 미약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섬포교 활성화에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노만사 주지 범도 스님도 "섬 주민에게 사찰은 정진적 지주이자 마음의 고향이었으나 타종교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불자들이 섬지역 사찰에 관심 갖고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자비신행회와 사찰전문음식점 수자타에서 마련한 점심공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공연, 광주 미용아카데미 봉사단의 미용봉사, 불자 의료진이 펼치는 의료봉사와 광주전남 포교사단이 노만사에 연꽃방죽을 조성할 예정이다.

(062)383-353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의 돼지' 성황리 마감

독거 어르신 위한 무료 급식 지원 예정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2009년 후원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6~12월 진행된 '희망돼지저금통 캠페인을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무공 스님(오른쪽)이 희망의 돼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희망돼지 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253만1170원은 지역 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다.

후원금은 고창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모금된 64만1100원과 복지회관 복운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149만5900원, 일반 개인에게 분양되어 모금된 39만4170원 등이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공 스님은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2010년에도 '희망돼지 저금통 캠페인'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이재언

"부처님 일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미래의 주역을 흔히 청소년이라 말한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없거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기성세대의 잘못을 자녀가 떠안고 살아온 것.



이런 가운데 결손가정에서 자라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품어내고자 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이재언(사진) 포교사이다.

이재언 포교사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광주 향림사 신용협동조합을 찾았다. 이 포교사는 향림사 신용협동조합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언 포교사의 주요활동 무대는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이다. 이른바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곳이다. 이 포교사가 이곳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향림사 천운 스님의 권유가 컸다.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를 처음 찾았을 때, 이재언 포교사는 "처음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자신감은 있었다. 의욕도 넘쳤지만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릴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포교사는 "지금 부처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싹을 띄울 것"이라며 "포교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 활동 초창기에 이재언 포교사는 법회 시간인 2시간 가량을 이용해 1080배를 했다. 끝까지 1080배를 마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 다수는 108배만 해도 손 사레를 쳤다. 힘든 것은 피하고 편한 것을 찾는 아이들의 습성 때문이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포교사는 수행과 기도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도했고, 차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재언 포교사는 1986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군 제대 후 청년회 활동을 하며 많은 부서의 장을 맡으며, 신심나게 활동했다. 그때의 힘들이 지금 포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포교사는 "청년회의 등반이 역할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최근에는 동문회를 구성했다. 자신이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청년회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재언 포교사는 큰 소임을 맡았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직책이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100여 포교사를 돕고 조직화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침체된 조직을 복원하고, 활동하는 곳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포교사의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30년 가까이 청년회와 포교현장에서 깨우친 그의 노하우가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것이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문화해설, 염불, 자원봉사, 군포교, 교도소, 경찰, 직장직능, 어린이포교 등 각 팀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6대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 각 팀을 활성화하고, 각 포교사가 능력을 발휘하여 포교사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첨단 원적외선 선상 발열체를 이용한 DC담요…

월빙 원적외선 온열담요

대한민국 특허 KETI FAR INFRARED EMI

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

시험성적서
- 원적외선 열화상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원적외선 방사율(90%)시험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탈취시험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전자파 무해 시험성적서 획득 (2005. 2. 1 한국전자파연구원)
- 항균시험 인증서 획득 (2005. 2. 25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획득 (2005. 1. 25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소)



원적외선 발열섬유재

유해전자파 걱정없이 편안한 숙면 취할 수 있다.
간이매트 및 덮개이불처럼 소파, 바닥, 침대 등 어디서나 사용가능합니다.
최첨단 원적외선 선상발열체(Calober)를 이용한 DC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복사열로 따뜻함이 2배
천연광촉 음이온 발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 절전형으로 난방비 최대 4배까지 절약(전기장판 1/4)이 되며 절전효과가 뛰어납니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90%)와 곰팡이, 집먼지 세균의 항균 및 악취 탈취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불빨래, 물빨래가 가능(세탁기 사용)



특허받은 기술력!
탄소섬유사 제조장치 특허 제10-0715361호
탄소섬유사 제조공정 및 이로부터 제조된
탄소삼유사 특허 제10-0725189호
발명물질특허(천연광촉 음이온) 특허 제10-0805271호

Ⓐ 담요(차량,가정용) ₩60,000
제품사양 : MA-DC-1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75㎝×160㎝
제품구성 : 담요+시가잭(아답터, on/off스위치)
정격전압 : 220V/60Hz, DC12V/24V

Ⓑ 무릅덥개,쿠션 (차량,가정용) ₩40,000
제품사양 : MA-DC-2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60㎝×70㎝
제품구성 : 무릅덥개+시가잭(아답터, on/off스위치)

Ⓒ 무릅덥개,쿠션 (AC제품 220v가정용) ₩35,000
원자재 : Calober, EF-Velboa
규격 : 60㎝×70㎝
제품구성 : 무릅덥개+아답터, on/off스위치
원산지 : 대한민국



시가잭



아답터 on/off스위치

(주) 일 송
서울 강동구 길동 415-11 한솔브릿츠 110호
TEL : (02) 798-3797 / FAX : (02) 744-6541
H.P : 011-9883-6507 / 010-2957-3110



녹음이 무성했던 나무들이 나뭇잎을 모두 벗어 영산암을 보여주고 있다.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의 모습이 한가롭다.



영화 '달마가…' 와 '동승' 의 주요무대였던 영산암과 마당의 모습.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 이어진 소나무 숲길.

'달마가…' '동승' 촬영지
❷ 안동 영산암(靈山庵)

영화 속에 보았던 '옛날' 과 '자연' 을 만나다

"스님은 왜 산에 계십니까?"

환속을 결심한 기봉 스님이 큰스님에게 물었다. 큰스님은 법당 처마 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남에서 온 제비야 고향길은 어디로 나 있더냐? 네가 물어간 볍씨 한 알에 황금빛 수선화는 입을 열더냐?"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하 달마가)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스님 셋이 주인공인 영화였다. 그 때 나는 달마가 누군지 몰랐다. 동쪽으로 간 것도 몰랐고, 왜 갔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한 곳이 이 곳 영산암이었다는 것도 21년이 지나서 알게 됐다. 연로한 큰스님이 방안에서 문살에 기댄 햇살을 살며시 밀어내며 동자 해진을 부른다. "해진아!" 열린 문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작은 마당이 보이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영산암은 신라 문무왕 12(67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 스님이 창건한 봉정사(鳳停寺)의 부속 암자다. 영산암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사료를 통해 19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우화루와 관심당, 송암당, 응진전, 삼성각으로 이뤄진 영산암은 전각의 배치가 독특하고, 특히 마당이 아름다운 암자다. 출입문인 우화루 밑을 지나 돌계단 몇 개를 오르면 결코 크지 않은 마당이 도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마당에서 혜곡 큰스님은 세간으로 돌아가려는 기봉 스님에게 지팡이를 던지며 역정을 낸다. "말해라 말해! 마음달이 물밑에서 차오를 때 나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큰스님이 기봉 스님에게 준 화두였다.

영화에서 영산암은 다 쓰러져가는 암자다.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은 법당 툇마루도, 관심당 문살도 영화 속 하고는 다르다. 쓰러져가는 암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영산암에는 응진전 뒤로 편안한 소나무 숲이 있다. 그 숲속 작은 언덕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영산암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작은 암자다. 바람에 날려 온 꽃씨가 바람이 정해준 곳에 자리를 잡듯 영산암은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피어있었다. 억지로 땅을 밟지도 깎지도 않았고 길을 내지도 않았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옛날' 이 있었고, '자연' 속에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마당 위로 영화 속 장면들이 지나간다. 산새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 속에 던져진 어린 해진의 모습. 끊고 싶은 괴로운 숙명 속에서 대자유를 갈망했던 기봉 스님의 모습. 석등에 불을 켜며 저녁 마당을 거닐던 혜곡 큰스님의 모습. 영화 속에서 보았던 암자의 마당이 21년의 세월을 건너 작은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져있고 귓가에는 기봉 스님의 독백이 들려왔다.

작은 암자에서 느끼는 고요와 정갈함…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그는 홀로 왕궁을 나와 검은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500여 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있었던 그의 떠남은 세상을 등져버린 떠남이었던가요? 그는 출가를 통해 이 땅의 모두에게로 시간을 초월하여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간 것은 모두에게로 완전하게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달마가' 는 보통의 영화와는 다르게 스토리 중심의 플롯을 버리고 회화적인 영상과 상징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 혜곡 큰스님의 설법과 기봉 스님의 독백이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힘이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상징과 은유, 그 뒤에 따라붙는 감각적이고 불교적인 영상이 그 힘을 더 큰 힘으로 만들어 영화를 완성한다. 21년 만에 다시 본 영화가 영산암으로 향하게 했다.

영산암으로 오르는 길에는 소나무 숲길이 있다. 그리 길지 않은 숲길은 경사 때문에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어서 짧지 않은 숲길이 되어 절에 가는 맛을 더한다.

영산암은 봉정사보다 약간 높은 곳에 바로 붙어 있어서 우화루나 영산암 밖에서 봉정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보물 제55호인 봉정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뵙고 나와 한 오십 여개의 돌계단을 오르면 영산암이다. 꽃비(雨花)가 내리는 우화루 밑을 지나면 혜곡 스님이 불을 켜던 석등이 보이고 석등을 보며 돌계단을 오르면 혜곡, 기봉, 해진 스님의 발자국이 숨어있는 영산암 마당이 나온다. 영산전에 갈 계획이 있는 불자들이 있다면 그 옛날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보고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영산암에 밤이 오고 불 켜진 응진전 문살 너머에서 동자 해진의 저녁예불 소리가 들려온다. "지심귀명례" 풍경소리 같은 해진의 예불소리가 영산암 어둠속에 번지고, 석등 앞에 선 기봉 스님은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한다. 기봉 스님은 해진에게 큰스님의 유품을 전해주고 암자를 떠난다. 멀어진 기봉 스님의 뒤를 따라가며 해진이 묻는다.

"스님, 어디로 가세요?"

'달마가' 가 상영되고 그로부터 10년 뒤 영산암에서는 또 하나의 영화가 촬영되는데 2002년에 개봉한 '동승' 이다. 월북 작가 함세덕의 원작 희곡 '마음의 고향' 을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세 스님의 이야기라는 설정은 '달마가' 와 비슷하다. 다음에 영산암에 올 때는 영화 '동승' 을 다시 보고 와야 할 것 같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산암 가는 길

자가운전은 고속도로 서안동나들목을 나와 안동 방향으로 '봉정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안동 시내로 들어와서 안동초교 앞에서 출발하는 51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루 7번 운행한다. 출발 시간은 안동초교 출발이 06:00, 08:15, 10:30, 12:40, 14:40, 17:10, 18:50 이고, 봉정사 출발은 06:50, 09:20, 11:30, 13:40, 15:40, 18:00, 19:30 이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준영, 한자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 ·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 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무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제반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편람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 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 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종,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50 〈끝〉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는다

붓다 입멸 2500년 지났지만 진신사리로 빛나고 있어
화엄경 · 법화경 통해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임을 강조

[원문]
나무대방광불화엄경(南無大方廣佛華嚴經)
만대륜왕삼계주(萬代輪王三界主)
쌍림시멸기천추(雙林示滅幾千秋)
진신사리금유재(眞身舍利今猶在)
보화군생예불휴(普化群生禮不休)
나무실상묘법연화경(南無實相妙法蓮華經)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번역]
대방광불화엄경에 귀의합니다.
만대 법륜의 왕이며 삼계의 주인이시며,
쌍림서 열반하신 후 천추가 흘러갔어도,
진신 사리는 여기 빛으로 자리하고 있네.
끝없는 중생교화 예배가 끊임없어라!
실상묘법연화경에 귀의합니다.

[선해(禪解)]
요즘, 아이티의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만 해도 한 해에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인 산수풍광(山水風光)을 지닌 곳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 타고난 사람의 수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도 더 할 수 없는 복덕(福德)이다.

생명은 아이티나, 미국,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모두 귀중하다. 구호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한다. 각 종단이 앞장서고 있다니 참으로 좋은 모습이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주련이야기를 연재 한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그야말로 금강석화(金剛石火) 같다. 사찰 속의 주련을 읽어 내려가면서 새삼 느낀 것은 우리 선대(先代)의 조사(祖師)들이 얼마나 뛰어난 법구(法句)들을 남겼는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주련의 내용들은 단순한 불심(佛心)의 시각(視覺)을 뛰어 넘어 선문법어(禪門法語)의 깊은 뜻과 오묘한 진리와 운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때는 감히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듯 한 웅장한 위용을 느끼게 해주는 싯구(詩句)도 적지 않았다.

비단 내용뿐만이 아니라 용이 비상(飛翔)하는 듯한 초서(抄書)와 둥글면서 납작한 예서(隸書)의 휘호(揮毫)들은 당대(當代)의 서예가들도 배워야 할 필체이다. 말하자면, 종횡(縱橫)으로 힘차고 걸림없이 써 내려간 글귀는 바로 불교문화의 자랑이며 유산으로 선지(宣旨)의 풍성하고 오묘한 운율은 아직도 귓가에 머무는 것 같다.

산승(山僧)이 1950년대 출가할 때만해도 사찰 주련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때라 불교학문과 서도 같은 예술에 시선을 둘 여지가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찰의 주련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산재했다. 요즘, 절에서는 주련의 글귀를 매우 귀하게 여겨 도색을 하거나 심지어 도금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날 주련은 승가나 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할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어쨌든 산승이 주련의 재료(材料)를 가지고 꼬박 1년 동안 연재를 한 까닭은 사심(私心)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불자들에게 주련에 담긴 불가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 그 와중에 고마움의 전화도 많이 받았다.

오십 회의 원고들을 모아 보니 상당한 양이 된 것 같다. 마치 한 권의 자료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흐뭇하다. 매주 돌아오는 적지 않은 양의 원고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련의 내용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괜한 사설(私說)과 승가의 이야기 및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피력했던 것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이다. 대개 사찰의 주련은 5언이나 7언 절구(絶句)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곳은 특이하게 7언 절구에 맨 처음과 끝이 9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과 끝이 부처님께 귀의 하겠다는 간곡한 표현 때문인데 그 내용은 마치 한편의 시처럼 매우 아름답고 깊이가 있다.

월정사의 창건 유래가 적혀 있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643년 당(唐)나라에서 돌아온 자장 율사는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절터에 초암(草庵)을 짓고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민지(閔漬)가 쓴 〈봉안사리 개건사암 제일조사전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에 인용한 〈대산본기(臺山本記)〉에는 자장 율사가 초가집을 짓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백산 정암사에서 입적하였다. 이때 자장 율사가 머물던 곳이 바로 현재의 월정사 터라고 한다. 이를 볼 때 이 절은 643년 자장 율사가 건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신의(信義) 선사가 암자를 건립하여 머물다가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땅으로 신앙되고 있는 이 절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귀중한 사서(史書)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史庫)가 있었다. 1464년(세조 10)에 말사인 상원사(上院寺)를 중수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고자 시주물(施主物)과 함께 보내 온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祠勸善文)〉이 보관되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석가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한 8각 9층 석탑과 상원사 중창권선문이 있다. 이 밖에 일명 약왕보살상(藥王菩薩像)이라고도 하는 보물 제139호인 석조 보살좌상(菩薩坐像)이 있다. 그래서 인지 주련의 내용도 〈화엄경〉과 〈법화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두 대승경전은 '경 중의 왕(王)'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주련에 담긴 두 경의 가르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만대륜왕삼계주' 알다시피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경〉을 뜻한다. 대방광이란 우주 같이 크고 밝고 넓다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 어구로서 오득(悟得)한 세계의 광대함을 뜻한다. 화엄이란 불타 정각의 경계로서 아름답고 웅대한 도량에 수많은 꽃들이 존엄하게 장식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인데 경전은 화엄과 묘유의 세계관을 비로자나 법신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삼계의 주인이시며 위대한 법륜을 굴리시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쌍림시멸기천추 진신사리금유예' 부처님은 쌍림서 열반 하신 지 250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월정사에서 진신사리로 빛나고 계신다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보화군생예불휴 나무실상묘법연화경' 〈나무실상묘법연화경〉은 흔히 제법(諸法)의 실상을 바로 깨치면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승경전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경전인데 이러한 부처님의 중생교화는 그 끝이 없어 중생들의 예배는 끊임이 없다는 경구(警句)이다.

월정사 적광전의 주련은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통해 모든 중생들의 귀의처(歸依處)를 권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설한 화엄 · 법화사상을 통해 우리는 이 혼탁한 말세에 본래부처로서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는 대승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5

'육적', 육바라밀로 전환하라

[원문]
惑亂身心 沈淪生死 輪廻六趣 受諸苦惱 猶如江河 因小泉源 涓流不絶 乃能彌漫 波濤萬里 若復有人 斷其根源則衆流皆息 求解脫者 能轉三毒 爲三聚淨戒 能轉六賊 爲六波羅密 自然永離一切諸苦.

일체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 때문에 몸과 마음이 산란하게 흐트러지며 생사에 빠져 들어 육취(육도)를 윤회하며 온갖 고통을 받는데 큰 강이 작은 샘을 근원으로 하여 쉬지 않고 흐르다가 마침내 가득히 차면 만리에 파도가 출렁이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사람이 그 근원을 끊게 되면 온갖 흐름이 모두 쉬게 되느니라. 해탈을 구하는 자가 삼독을 돌려 삼취정계로 만들고 육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히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리라.


조선 후기 도화서(圖畵署) 화원이었던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의 달마도.

[해설]
우리는 본래 부처님입니다. 다만 무지에 의하여 중생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 한 해 한 해 큰 꿈을 꾸고 살지만 역시 중생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체 현상계는 텅 비어 있건만 진실이 아닌 허망한 존재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온갖 악업을 지어 괴로워하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에 무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 탐심, 진심을 일으키면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을 계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구를 파헤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를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자연과 인간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이 무너지면 인간도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독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면 끝이 없어요. 부처님이나 달마 스님께서는 삼독을 끊어야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취정계(三聚淨戒, 일체의 악을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실행하며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라는 것은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두고 정진을 통해 악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품이 드러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쓰면 순수한 부처님 마음은 점점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본래 마음자리에 두고 깨어있어야 되며 하나로 보고 행하는 자비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실상(實相)을 바라보면 부처 아닌 게 없으니까 모든 대상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는 아상(我相)이 있게 되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하심(下心)해야 한다는 말은 나를 철저히 낮춰야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차원에서는 일체 현상계를 부처님으로 알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선행입니다. 불자님들이 좋은 일 한다고 봉사하는 것도 상(相)을 가지고 행한다면 순수한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행위를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할 때 바라밀행으로 이어져 깨달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안이비설신의를 육근 또는 육창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오염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섯 기관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끄달려 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적을 돌려 수행덕목인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히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보시바라밀에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선행 하는 것은 인과에 걸립니다. 내가 행한 것은 반드시 상대에게 되받아야 하니 그 행위는 바라밀이 아닙니다. 베풀 때는 대상이 없어야 해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파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예요.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겁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인데,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실, 그것도 모양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행한다면 우주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끝이 없는 우주를 상대로 행하니 자연히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이 됩니다. 성현들은 그런 바라밀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전기(제3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2월개강)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과목
교수진	무진장 대종사,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박종교수 정병조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주명철교수, 정엄스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6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60명), **통신반** (60명)

■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년 1월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 학 금 :** 250,000원

■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10년 2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 본회사무처 TEL:02)732-1206 FAX: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www.dongsanbud.net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프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관련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중국고전(노자),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등	임채우교수	3월 4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일본차문화사(한국, 중국, 유럽) 재다학(1), 한국의 헌다례	박전열·이춘실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1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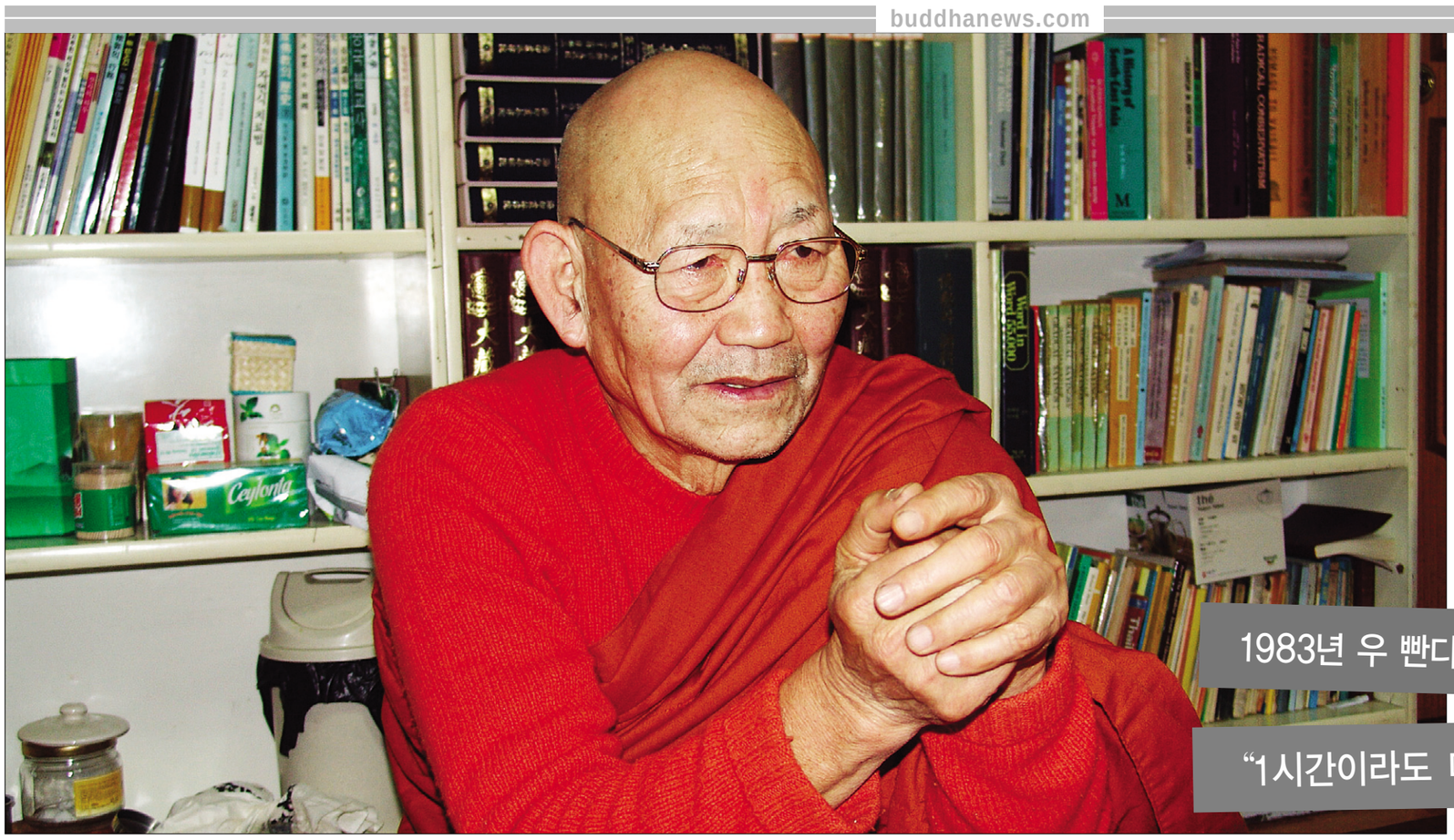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유식 30송 (2)	묘주스님	3월 8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교리와 사상	김형준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의 수증론(1)	최봉수교수	3월 11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혜성스님	3월 16일(화) 오후4시30분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6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3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도성(뿐냐산또) 스님은 ...

1925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했다. 1953년 부산 선암사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선암사,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등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1972년 태국 방콕 왓벤자마보핏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 태국의 웨웩아솜 위빠사나명상센터, 스리랑카 비구아일랜드 등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근본불교를 전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대흥사 주지,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태국 마하 쭐라롱콘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스리랑카 상가로부터 '삼붓다 사사나 조띠까 마하테라'라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1973년 부산 태종사를 창건해 현재 조실을 맡고 있으며, 2009년 10월 31일 한국테라와다불교 상가라자(승정)에 추대됐다.

1983년 우 빤디따 스님 만나 본격 위빠사나 수행

"1시간이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정진하세요"

마음이 주인공 되어 관찰하며 사는 게 수행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막바지 한파가 위세를 떨치던 1월 16일 오전. 서울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여행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설레임과 즐거움을 준다. 2시간 52분, 창밖으로 스쳐가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부산역이다. 서울엔 아직 찬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했는데, 바닷바람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부산역광장 건너편에서 101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니, 부산을 대표하는 암석해안의 명승지 태종대 입구가 보인다. 삼삼오오 짝을 지은 연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관광지로 쏟아져 들어간다.

200여 종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진 기암괴석, 탁트인 전망이 일품인 태종대는 신라시대 태종 무열왕이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던 중, 영도의 절경에 도취되어 쉬어갔다고 해서 태종대라 명명 됐다. 이곳에서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대마도가 보여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기도 하다. 해발 250m에 달하는 암석해안 중턱에는 폭 7m의 순환관광도로가 4.4㎞에 걸쳐 있는데, 우측으로 운행하는 '다누비'라는 관광열차를 타면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필자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만끽하기 위해 다누비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인 태종사로 천천히 걸어올라 갔다.

한 10여 분을 걸었을까, 태종사 표지석이 눈에 들어온다. 관광지라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기우와 달리,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담한 절이었다.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남방불교의 정취가 느껴지는 독특한 도량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테라와다(上座部)불교를 다시 도입, 근본불교의 정신을 되살려 위빠사나 중심의 부처님 수행법을 보급하는 토대를 일군 도성(道成, 뿐냐산또)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는 절로 이름이 높다.

'테라와다(Theravada)'는 장로(長老) 또는 연장자의 의미로, 테라와다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 지역의 불교를 말한다. 1990년대 초부터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한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이 2009년 10월 31일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빤냐와로)의 최고지도자인 상가라자(僧正)에 추대된 고승이 도성 스님이다.

태종사 종무원의 안내로 지대방에서 기다리니, 바로 옆방에서 도성 스님이 나오신다. 86세의 세수(호적상은 1919년생으로 92세)가 믿기지 않는 꼿꼿하고도 건장한 신체와 고운 피부가 눈을 의심케 한다.

"이건 금전차(金錢茶)라고 하는데, 드셔봐요."

이 차는 금전초(金錢草)라는 야생초를 말린 차로, 전립선과 담석 제거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하신다.

"절 주변에 널려 있는데, 금전차를 마시고 담석이 금새 사라진 분들이 많죠. 금전초가 몸에 닿기만 했는데 건강해진 분들도 있어요."

부드럽고 맑은 차맛이 약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런 특징도 없는 무덤덤한 맛이라고나 할까. 고요고요하고도 또렷또렷한 수행을 통해 이른 삼매의 상태를 아무런 재미도 없는 몰자미(沒滋味)한 맛이라고 하는데, 감각을 초월한 맛이 이 맛이 아닐까 싶다. 도성 스님은 이 금전초가 몸에 좋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태종대 곳곳에 금전초 씨를 뿌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손길에 닿거나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자비를 베푼 것이다. 스님이 무심코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이 배어있는데, 세심히 보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만 같다.

차를 마시며 스님은, 얼마 전 태국을 여행했을 때 "한국에서 남방 가사를 40여 년 입었다"는 말에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도성 스님은 은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였던 지월 스님이 1969년 스리랑카에서 가사 한 벌을 가져온 후 남방 가사를 수시로 입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2년 태국의 테라와다 계를 받은 후, 지월 스님과 석암 스님의 허락하에 남방 가사를 계속 입게 됐다.

"자네가 그것이 절대 옳다고 믿는다면 입어도 좋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서 불구하고 이러한 말로 격려한 지월 스님이나 당신의 신념대로 한 길을 걸어온 도성 스님의 삶 자체가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홀로 걷는 구도자의 전형으로 느껴졌다.

젊은 시절,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며 석우 스님, 효봉 스님, 보문 스님, 동산 스님, 성철 스님 등 당대의 고승을 친견하며 간화선을 참구하기도 한 스님은 남방 가사를 입기 시작하면서 근본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1973년 태종사를 창건한 스님은 태국에서 불상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기증받는 등 가야, 신라시대 이후 거의 단절된 남방불교를 다시 한국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도성 스님은 가락불교는 인도 아유타불교를 직수입 했으며, 원효스님과 초의 선사는 지관선법(止觀禪法)을 전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남악혜사 스님의 <대승지관법문>에 따르면, '지(止, 사마타)'란 우리 의식이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것을 돌이켜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으로, 망념이 생사의 세계로 흐르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관(觀, 위빠사나)'은 의식이 대상을 향해 관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법이 허깨비(환상)로 존재한다는 이치를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한국에 전해져 오는 지관법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며 실참을 닦아오던 도성 스님은 1983년, 15세 연하인 거해 스님을 통해 미얀마 마하시센터의 우 빤디따 스님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빨리어 공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스리랑카 마하출라롱컨대학 한국분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도성 스님이 해인사 주지소임을 맡을 정도로 기득권을 지닌 입장에서 생소한 남방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수행법에 무슨 결함이 있길래 도통(道通) 했다는 스님들이 다른 사람 보다 나은 게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요."

도성 스님은 깨달았다는 도인들이 탐진치(貪嗔痴) 삼독(三毒)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때부터 스님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국가를 순례하며 수행법과 교학을 배우고, 예불도 빨리어로 해왔다. 30여 년간 빨리어로 외우는 아침 저녁 예불을 거른 적이 없으며 여행중인 경우도 혼자서 예불을 올릴 정도로 근본불교에 대한 확신은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뜸과 지압을 간편하게

신개념

쑥뜸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동재질의 금도금 수제명품! 뜸 자국, 화상 걱정 없는...



일반형 99,000원 고급형(음각) 128,000원 고급형(양각) 148,000원



■구성
쑥뜸 지압봉 (16.5cm)
휴대용쑥 (2개입) +
쑥뜸 목 + 쑥 (30개입)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뜸목



쑥(30개입)

쑥뜸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1
구입문의 02)2263-6853 / 011-348-685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팔정도 실천이 수행의 모든 것



흔들림이 없었다.

구도자들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맨 처음 걸어갈 때는 길을 잃거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경우가 태반이다. 당시로서는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는 위빠사나 수행의 구도역정(求道歷程)은 어떠했을까.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뒤돌아보면 좋은 조건에서 참 수월하게, 즐겁게 수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번뇌가 없고 몸이 아프지 않아서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었지요. 물질적으로도 늘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다보니 아쉬운 게 없었고, 원수 진 사람도 없으니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이 없지요."

항상 안분지족(安分知足) 하며 살아온 구도자의 삶은 그야말로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생활이다. 그 무엇도 바라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삶이라는 법문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느껴진다. 스님은 "부처님이 설한 도(道) 가운데 팔정도(八正道)가 제일이다"며, 늘상 새롭고 묘한 것을 밖으로 찾아 헤매는 수행자들을 경책한다.

"고통을 다스리는 법, 고통을 멸하는 사성제가 거기 있으니,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처음과 끝입니다. 수행할 때 괴로움을 없애지 못하면 정진을 잘 할 수 없고, 좋은 길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 마음 찾으라' 해놓고 딴 짓을 왜 합니까? 제 고통을 왜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道理)는 알아서 뭘 합니까. 자기 고통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도리를 알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욕락을 헌신짝 처럼 버리라'고 말하면서 절과 중벼슬을 얻기 위해 다툰다니 웬말입니까?"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道聖諦)인 팔정도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누구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행자들은 이론과 실천, 깨달음과 삶이 유리된 반쪽짜리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게 도성 스님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수행과 삶, 깨달음과 보살행이 둘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수행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림'이 있는 정진은 지금 여기서 현증(顯證)되는 수행법"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차 한 잔 마시는 일도 내 마음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정진이 빠져서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늘 일념으로 정진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항상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수행입니다."

도성 스님은 일할 때나, 정진할 때나, 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마음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념처관(四念處觀), 즉 위빠사나 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깨어있는 수행이다.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 등 관찰대상에 대한 마음집중 혹은 알아차림(念)이 확고하고 면밀하게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보고 있는 그 주체에 마음을 집중하고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냄새를 맡을 때도, 어떤 음식을 맛볼 때도, 무엇을 만질 때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항상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다.

도성 스님은 이러한 알아차림 수행의 7가지 요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법(法)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지속해 나간다면 삼매와 평등심이 자연히 따라나올 것입니다."

물론, 스님은 '삼매'니 '평등심'이니 하는 것도 모두 이름과 개념일 뿐, 이를 실제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수행을 통해 탐심과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해 가면 계정혜(戒定慧)가 저절로 성취된다. 꾸준한 알아차림 수행으로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에 따로 구할 것이 없다는 것.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노력과 체험을 강조하는 도성 스님은 탐진치를 어떻게 조복(調伏)시켰을까.

"탐진치를 일부러 억제한다기 보다는 탐진치가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되니까 저절로 줄어들겠지요. 예를 들어, 탐욕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조절이 참 중요해요. 식탐이 가장 근원적인 탐욕이기에, 무조건 소식 하기 보단 어느 정도 먹어야 내 몸에 맞는지 알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동물들은 자기 몸에 딱 맞게 식사를 해서 위장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동물 보다 못한가 보죠."

스님은 평생 오후불식을 하면서 수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로 포행(산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 30분에 예불을 올린 후, 좌선을 하고 화원의 보온을 위해 연탄을 가는 등 도량 곳곳에서 사소한 일들을 직접 챙긴다. 신도들이 찾아오거나 초청을 하면 법문을 해주고 수행도 지도하러 다니지만 몸이 피로한 줄을 모른다고 한다. 90을 눈앞에 둔 연세에 장거리 항공여행을 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거동하는 모습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할 맛이 날 정도로 재미가 있고 수월해야 해요."

도성 스님의 법문은 생활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러난 것이기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생생하게 다가온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수식된 깨침의 언어가 중생의 삶속에 실현되지 못하는 요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문자선(文字禪), 구두선(口頭禪)이 횡행하는 오늘날. 한 평생 부처님 법대로 한결같이 소박하게 수행해 온 스님의 삶은 그대로가 법문이다.

지구 반대 편 아이티에 일어난 대재앙에 대해 우리의 공업(共業)임을 알고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성 스님. 성주괴공(成住壞空) 하고 생주이멸(生住異滅: 만물이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현상)로 변화하는 자연과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며 우주는 영원한 것 없는 제행무상의 세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

도성 스님은 스님과 불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간곡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1시간이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정진하세요. 병 들고 힘 없으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부처님 법문 그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9. 석남사 인홍 선사

석남사 인홍(1908~1997) 스님은 한국 비구니 총재를 지내신 분이다. 인상이 남달라 여자이면서도 남자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일찍부터 여장부로 알려졌다. 경북 영일에서 출생해 어머니 진양 하씨가 백마를 탄 장군을 보고 낳았는데, 어려서도 여자 아이들과는 놀지 않고 남자들과 잘 어울렸다고 한다.

1941년 33세의 나이로 세상의 무상(無常)을 깨닫고 월정사 지장암에 출가해 상원사에서 3안거를 마치고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 들어가 영가 천도법을 전수받고 그곳에서 참선정진하였다.

45년 서울 안국동에서 동산 율사에게 비구니계를 받고 수덕사 만공 스님



석남사 주지를 맡으며 쇄락한 도량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 선사의 청규를 그대로 실천한 스님은 69년 60이

일엽편주(一葉片舟) 두둥실
떠가는 곳이여
공중에 둥근 달은 밝은 빛 뿐이네."

필자와는 스님의 상좌 한 분이 통신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잘 했으므로, 그 인연으로 부산 동래에서 한 여름 동안 수련을 마치고 석남사에 찾아가니 그 위용이 대단했다. 신라 헌덕왕 16년(824), 도의 국사가 창건한 이 절은 한국 9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로서 남정네도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어떻게 개간해 중창불사를 이뤘는지 알 수 없다.

그때만 해도 나이 80이 다 되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대원사 선방에 있다가 해제한 후 오셨다고 하였다.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기린아… "도인도 배워야 포교해"

처소를 거쳐 다시 오대산 한암 스님께 찾아갔다. 그러다 6.25한국전쟁을 만나 월내 묘관음사로와 정진하다가 그곳에서 한 소식을 얻었다.

"해동에 천고(千古) 밝은 달은
강남 만리 천(川)을 비추고 있네
저 맑은 달빛은 본래 피차(彼此)가 없거니
참선자는 분별 · 망상 떠나야 하리."

이로부터 청풍(淸風) 납자가 구름처럼 몰리자 태백산 홍제사로 갔다가 대구 동화사에 전국 비구니총림을 계획했다가 파정했다. 1957년부터 20년간 언양 석남사에 머물면서 대웅전, 극락전, 정수선원, 심검당, 건원동을 보수하고 3층 대탑을 보수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

넘은 연세로 석남사 심검당 3년 결사를 시작했다. 마지막 100일은 아예 잠을 자지 않으며 용맹정진하는, 처절한 수행이었다.

이렇게 77년까지 중창불사를 마치고는 다시 본분 회상으로 돌아가 쌍계사 칠불암, 유가사 도성암, 지리산 상무주암, 덕산 대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을 계속한다.

그후 석남사 별당에서 주석하던 스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서릿발같은 엄격함으로 후학을 지도하며 용맹정진을 할 때마다 장군죽비를 내리쳤다. 마지막에는 80 고령으로 3년 결사에 들어가 97년 4월 14일, 세수 90으로 열반에 드시니, 한국불교 4부대중의 기린아였다.

"3세 불조 가던 길을 나도 가야지
우민생애 사바의 길 꿈길만 같네

"우리 불교는 너무 무식해 큰 일이여.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도만 깨달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이 나오시더라도 운전을 배우지 아니하면 차를 몰 수 없지 않는가. 학벌도 없는 가운데서 일만 배우다 보니 또 고집까지 불통(不通)이거던. 젊은 사람이 통신교육을 한다 해서 내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였으니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깍듯이 격려해 주었다.

스님의 주장은 도인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즈음 말로 하면 리모콘을 쓸 줄 알아야 TV도 보고 비디오를 틀듯이 비행기, 기선, 기차를 타지 않고 어찌 먼 길을 가며, 길가에서 만난 사람 제도하려면 무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본 사람을 제도하려면 일본 말을 잘 해야 하고, 미국 사람을 제도하려면 미국 말을 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방송
경남중계소 개국
FM 89.5 MHz
개국법회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초전법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행복의 지혜를 처음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2,600년이 지난 오늘 부처님의 가피와 불교방송의 치열한 원력으로 경남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경남중계소를 개국하게 됐습니다.
경인년 새해, '불교방송 경남중계소 개국 및 부산불교방송 개국 15주년 기념 법회'를 마련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4년 좋은 날
(재)불교방송 이사장 영 담
부산불교방송 사 장 박순곤
일시: 2010년 2월 1일 오후 6시
장소: 경남 창원시 대원동 풀만호텔 대연회장
법회 문의 : Tel. 051)797-5114
BBS 불교방송
◆ IP-TV QOOK TV (ch.550) broad&tv (ch.521) myLG tv (ch.108) ◆ RADIO 부산 89.9MHz ◆ 시사주간지 판판뉴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구 12B
인지구 26B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 (무속인은 제외) 등록서류 : 본종의 소정양식을 우편물이나 팩스로 전송해드림
- **입종서류**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사진4장, 법당 내,외사진 각 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본원불교의식대학 제5기생 학인 모집요강

1. **교육기간 :** 1년
2. **모 집 일 :** 2010년 3월 3일까지
3. **수업일시 :** 2010년 3월 5일 개강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
4. **교육내용 :**
   - 기초반 – 도량석, 종성, 기도의식, 조석예불, 천도의식, 49재,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중급반 – 거불, 복청게, 천수바라,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5.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
6. **교육장소 :** 종로구 평창동 본원종 교육원
7. **자 격 증 :** (1) 포교사 자격증 발급,
   (2) 행자교육 6개월 과정 인정
8. **강 사 진 :** 만혁 스님
9. **접수 및 문의 :** ☎ 02)391-4376
   전송 02)379-2746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大韓國佛教曹溪宗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덕 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창종한
大韓國佛教曹溪宗이 함께하실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시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비구니부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 한 국 불 교 조 계 종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정토사
총무원 전화 02)379-5502 / 팩스 02)379-0843

밝게 깨달으신 부처님 크신 은혜 감사
143회 3000배 용맹정진

밝게 깨달으신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마움에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으로 보은 공경하는 3000배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전신의 노폐물,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10년 1월 30일(토) 저녁 9시 ~
  2010년 1월 3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필)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 전철 : 2호선 뚝섬역 7번출구 우측으로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학장 일해스님

접수 및 문 의 **053)986-1080**
011-9361-5566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법당 앰프 | PWA-110 320×230×270mm...8.5kg | PWA-730 430×275×275mm...4kg |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 석가모니 부처님 |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불교는 오감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

불교 클래식 선두주자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 테마공연으로 불교음악 저변 확대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감독 강형진)이 2010년 첫 기획연주회인 ‘화폐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공연을 1월 18일 성황리에 마쳤다. 불교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클래식음악으로 활동하고 있는 니르바나는 항상 새로운 테마의 이야기들을 클래식과 엮어 공연했다. 2010년에도 어김없이 ‘화폐’라는 새로운 주제로 클래식의 고고한 선율을 들려줬다. 이번 공연은 방학시즌을 맞아서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객석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해 나가며 클래식 전파에 여념이 없는 강형진 단장(56 · 사진)을 만나 그가 들려주는 또 다른 클래식의 뒷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공연을 마쳤다. 소감이 어떤가.

“항상 공연은 마치고 나면 아쉽다. 이번에 ‘화폐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공연은 방학시즌을 맞아서인지 확실히 학생관객들이 많더라. 예전에는 이렇게 스토리 있는 연주공연을 할 때에는 다른 분들이 공연의 전반적인 해설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해설을 했다. 확실히 예전에는 몰랐던 청중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었다.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

–항상 스토리 있는 공연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에도 그런 공연을 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이번에 직접 해설을 보니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관객분들이 공연이 재밌다고들 많이 말씀은 해주셨지만 내가 느끼기엔 생동감은 좀 떨어지더라.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해설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공연보다는 영상과 해설, 음악이 모두 매치되는, 오감이 만족되는 공연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런 공연을 기획하려면 지금 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거 같다. 어떠한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나.

“뭐겠는가. 당연히 돈 문제다. 사실 이번 공연에도 영상과 해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연을 보여주고 싶었다. 주제가 ‘화폐’였기 때문에 화폐사진도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배경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시간문제 인력문제 등도 있었지만 자금적인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번 공연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은 공연이 됐을 것이다.”

–공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 정말 좋은 공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 이런 공연 하나 만들 때도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며 좀 더 새로운 것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 공연은 배원준 선생님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잘 짜는지가 가장 중요했다. 스토리가 탄탄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공연이 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퀄리티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항상 스토리 있는 매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라 피하려 했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나갈지, 현재를 직시해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말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을 해온 클래식이라는 음악이고, 클래식 음악가들의 삶을 통해 그들과 삶에서 배어나온 음악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불교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 솔직히 활동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래도 불교 안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려는 것은 불교에서 음악적 인재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젊은 인재를 발굴해 키워보고 싶어도 프로그램 등 무대를 설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 나는 단원들을 뽑을 때 거의 내색은 안하지만 그래도 불자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뽑는다. 그들에게 좋은 무대를 서게 해주고 돈도 되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

–불교 안에서 음악적 인재를 발굴해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 같다. 시장이 좁지 않나.

“그래서 이런 테마 공연을 기획해 그들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거다. 20년 이상 힘들게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자신과 맞지 않는 불교음악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어느 정도 갈증도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레 불교음악도 접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불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겠다. 아무래도 벗어나면 활동하기 더 편하지 않겠나.

“제약이 많은 편이긴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행단체로 보고 연주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는 공연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조항에 있다. 우리는 엄연히 예술단체이지 신행단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를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밖으로 공연을 해야 좀 더 불교 전문음악인을 발굴해 길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 ‘니르바나(열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불교를 알리고 있는 거다.”

–앞으로 불교음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말 무한하다. 가능성이 많다.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오감을 표현할 줄 아고,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교에는 음악이 없다. 음악과 종교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교음악은 명상적이고 우주적 소재도 많으며, 깊이 있기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노력해 밖으로 안으로 인지도를 쌓아야 한다. 여태껏 했던 테마 공연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절대 아니다. 이런 기획 공연들이 하나씩 쌓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넓은 마음과 좋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제공=니르바나 석명용

작가의 ‘부처’ 만나다

물파공간 2월 16일까지 禪 미술전



전시작 중 하나님 ‘법관’.

내 안의 부처를 찾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일까. 내 부처를 찾아 세대를 망라하고 장르에 상관없는 예술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물파공간(관장 손병철)은 2010년 신축기획전 중 첫 번째로 선(禪) 미술전 ‘存佛–내 부처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선사상을 주제로 회화, 조각, 설치 등 장르를 구분 짓지 않고 4명의 승려 작가와 10명의 중진작가가 그들만의 부처를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전시 기획을 맡은 손병철 관장은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조형언어의 창출이야말로 당대 예술가이자 진정한 고수(高手)들의 사명이며, 인류문명사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이번 전시는 한국 선(禪)미술이 세계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미술기획전 ‘존불–내 부처를 찾아서’는 2월 16일까지 서울 견지동 물파스페이스에서 관람할 수 있다. (02)739–1997~8

이은정 기자



붓과 마음 하나로 작업

단청장 전수조교 양선희씨 개인전 경인미술관서

“불화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으로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만하지 않으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불화는 붓과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 올리는 신성한 공양물이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전수조교인 양선희씨는 제3회 개인전 ‘초도석화전(草圖石畵展)’을 통해 부처님에게 올리기 위해 정진한 불화를 선보인다.

“불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본과 채색입니다. 이번 전시는 저의 스승인 만봉 스님에게 배운 기법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전통불화 제작기법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화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부처님의 세계를 말해주는 불교예술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화 작업은 수행의 연속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양선희씨가 스승인 만봉 스님에게 전수받은 초(草)로 작업한 불화작품들을 선보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초본작업은 불화의 탄생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불화의 탄생을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화원의 전체적인 능력을 판정할 때도 초 그림 솜씨로 우위를 판단할 정도로 초는 불화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양선희 불화가는 “만봉 스님은 항상 신심을 내서 초를 내고, 채색을 올리라고 당부 하셨다”며 “끊임 없는 정진을 통해 노력하는 것이 금어(金魚: 불교에서 불화의 최고 경지에 이른 스님에게 주는 칭호)의 길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연석채를 갈아 채색을 한 영산회상도 괘불, 지장불화, 현왕탱, 사자탱 등과 불화 초본을 선묘로 그린 십이지신, 가사탱, 지장시왕도, 관음도 등 30여 점, 전통 단청 초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10여 작품이 전시된다.

항상 좋은 연료로 정성을 다해 불화작품에 매진하는 양선희 불화가의 전시는 1월 27일~2월 2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02)733–4448

이은정 기자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2010년 경인년의 운세 (25,000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 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으며,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였음

※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개인지도 2주에 완성 해 드립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경인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 사부대중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의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에 의해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된 메주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황토방에서 띄운 복메주는 장맛이 깔끔하고 된장, 간장맛이 좋습니다.

福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한 권의 책을 활구 화두로 삼아 볼까?

대행 스님 법어집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내 마음은 금부처' 한글 번역 출간

미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은 대행 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어집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No River to Cross)>와 <내 마음은 금부처(My Heart is a Golden Buddha)>가 나란히 한글로 번역 출간됐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국제문화원 옮김, 한마음출판사)에서 대행 스님은 지금 당장 접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혜의 세계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으니,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라고 설한다. 흔히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깨달음과 열반이 있는 피안의 세계로 데려다 주는 뗏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행 스님은 우리가 찾으려는 뗏목이란 없으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 조차 원래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주제별로 구성된 이 책은 불이법(不二法)에서부터 구체적인 생활속의 공부법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에서부터 실질적인 수행의 문제들을 친절하게 설파하고 있다. 로버트 버즈웰(Robert Buswell) UCLA 불교학연구소장은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세속적인 일조차도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는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대행 큰스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인 출판사인 위즈덤출판사(Wisdom Publications)는 서평에서 "어디 하나 손색없는 선사로서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계신 대행 스님은 <No River to Cross>에서 철저히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매우 참신한 마음 수행법을 선보이고 있다. 스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무결한 근본 자리인 우리의 '참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의외로 간단하지만, 그 가르침의 깊이는 놀라운 정도로 심오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 마음은 금부처>(한마음국제문화원 번역, 한마음출판사)는 대행 스님의 지혜로운 선(禪)이야기와 법문을 담은 책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겸하고 있다. 재미있고 신기한 옛이야기처럼 다가오다 어느새 화두가 되고 선문답이 되어 공허한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법어집이다. 단시간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깊이는 두껍고 난해한 철학서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형식은 단순하고 소박해도 그 선(禪)적 향기가 가슴 속으로 촉촉이 젖어들어 독자도 모르게 자신을 근본으로 회향하게 하는 책이다.

바바라 루크(Barbara Ruch) 콜럼비아대 중세일본문화연구소장은 서평에서 "짤막하고 단순하게만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우리들의 선입견을 예기치 못한 사이에 깨버리면서,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그 해답을 향해 흘러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대행 스님의 활구(活句) 화두를 통해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수용(大受用)의 대장부가 되어보자.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소소영령하게 응대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행 스님.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땅끝절 미황사서 희망을…

"화두가 성성하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었으며 충만함이었다. 무아일여(無我一如)의 경지에 들어 현실로 다시 돌아오니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는 노스님들의 경험이 무얼 말하는 지 알 것 같았다."

한반도 남쪽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잡은 사찰. 서울에서 이른 아침밥을 먹고 출발해도 저녁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긴 쉽지 않은 절. 멋진 달마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해가 보이는 풍광을 가진 미황사의 주지 금강 스님이 첫 에세이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을 펴냈다.

땅끝마을 미황사의 사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맛깔스러운 글로 그려낸 이 책은 폐사에 가까운 퇴락한 옛절 미황사를 해마다 찾는 사람이 10만 명을 웃돌며,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5000명이 넘는(2009년 기준) 세상과 호흡하는 곳으로 만들기까지,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포교하는 금강 스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운 이야기, 학생 수 다섯 명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를 60명으로 만든 이야기, 산사의 일상에서 마음을 쉬는 템플스테이 등 미황사의 일상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 머나 먼 산골의 작은 절, 미황사가 어떻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 그 중심에는 2000년부터 미황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금강 스님이 있다. 2000년 겨울, 백양사 운문암 선방에서 유달리 화두 공부가 잘 되어 '이왕 시작한 공부 뿌리를 뽑으리라' 마음먹고 옷가기 몇 점 챙겨 떠나려고 들른 길에 미황사에 발목이 잡힌 스님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선방으로 삼아 삶속에서 더욱 치열한 정진을 계속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내는 역발상을 통해 세상과 호흡해온 금강 스님은 인기스타 보다는 마을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워 산사음악회를 열고 누가 찾아오던 마음 편히 스님과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절 문을 활짝 열었다. '날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짜로 차를 주고 인생상담도 해준다'는 소문이 퍼질만큼 세상과 호흡하며 사람들의 온갖 번뇌망상을 받아준 금강 스님은 사하촌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 각계각층,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아름다운 절로 미황사를 만들었다.

금강 스님은 서문에서 "이 책이 미황사와 인연닿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 미황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서산 대사 어록' 나와



서산대사어록
거부 스님 역주
운주사 | 2만7000원

<초발심자경문>부터 <치문> <서장> <도서> <절요> <선요>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에 이르는 조계종 강원의 교재를 주해(註解)를 달아 완간한 거부 스님이 최근 <서산대사어록>(운주사 刊)을 펴냈다.

총 4권,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어록은 1794년 4월 8일 정종 대왕이 서문을 짓고 제자인 편양언기 선사가 스승의 행장을 찬술한 <국일도대선사 청허당집(國一都大禪師 淸虛堂集)> 묘향산 보현사 판각을 번역하고 주(註)를 단 것이다. 이 어록에는 게송을 비롯한 서찰과 기문(記文), 비명(碑銘), 행장(行狀) 등의 심오하고도 주옥같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불자들의 필독서인 <선가귀감>의 저자이기도 한 서산(1520~1604) 대사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의병승을 모집해 평양 탈환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거부 스님은 "서산 대사가 제창한 '선(禪)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 말씀'이란 종풍은 선교양종의 통합을 뜻한다"며 "이는 교학을 익힌 다음 참선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성우 기자

종정스님의 삶에서 실마리 찾아라

혜봉 스님 '종정열전' 펴내



근현대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상징인 종정스님 22인에 대한 전기가 출간됐다.

혜봉 스님(이천 부석암)이 저술한 <종정열전>은 초대 종단 원종의 종정인 회광사선(1862~1933) 스님으로부터 만공월면(1871~1946), 한암중원(1876~1951), 퇴옹성철(1912~1993) 스님 등과 현 종정인 도림법전 스님까지 종정 큰스님들의 전기를 다룬 역작. 삼국시대부터 고려 고종 때(1215년)까지 기록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과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부터 조선 고종 31년(1894)까지의 고승 197인과 불교인 2명의 행적을 기록한 <동사열전(東師列傳)>의 후속편이라 할만한 책이다.

<종정열전>은 혜봉 스님이 20여 년 전에 집필 계획을 세워 수많은 신문, 법어집, 자료집 등을 섭렵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기록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1999년 발행한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와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처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이 밝혀진 부분을 추가 보완해 도서출판 문화문고에서 개정판을 출간한 것.

일제시기부터 현재의 불교사가 녹아들어가 있는 <종정열전>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현시점에서 충실한 자료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각 시기에 설립된 종단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일제시대 원종과 임제종의 종정(회광사선, 경운원기) △조선불교 선교양종(환응탄영, 동선정의, 해담치익, 용허장호) △조선불교 선종(혜월혜명, 만공월면) △조선불교 조계종(한암중원) △광복후 통합종단까지의 시기(석전정호, 만암종헌, 석우보화, 동산혜일) △통합종단 이후 조계종(효봉학눌, 청담순호, 고암상언, 서옹석호, 퇴옹성철, 서암홍근, 노천월하, 혜암성관, 도림법전)으로 구분된다.

<종정열전>의 또 다른 장점은 불교전반의 이해를 돕는 용어 해설, 관련 사진, 깊이읽기 자료를 첨부해 불교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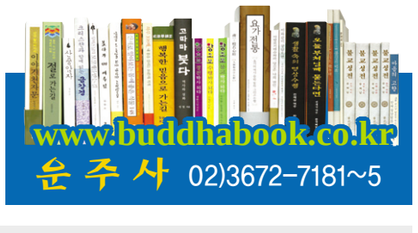
종정열전 | 혜봉 스님 지음 | 문화문고 | 상 · 하권 4만5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2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7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8	사는 즐거움	보경	뜰
9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탄다잉	행복한 숲
10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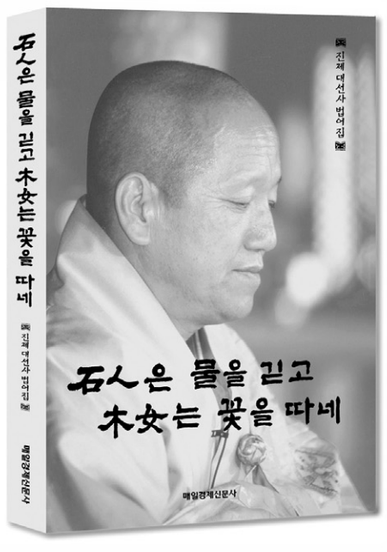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한국 선의 정법맥을 이으신 진제 대선사 새법어집

베스트셀러 인터파크2위 에세이전체

石人은 물을 긷고 木女는 꽃을 따네



진제 대선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348쪽 / 15,000원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주요 5대 일간지 전면 인터뷰 기사
-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무차선대법회' – 한 · 중 · 일 3개국 대표 선사들의 상당법어
- 처음으로 밝히는 성철 선사와의 고준한 문답
- 안거에 들어가는 전국 선원의 수행자들에게 수년간 내리신 고준한 상당법어
- 50여 컷의 사진과 禪용어해설 수록

"심무취사(心無取捨)–대인(大人)은 마음에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한다" _조선일보 "참선 수행으로 지혜 얻으면 출세와 복락은 따라오는 것" _매일경제
'어떤 것이 참나인가?' 라는 의심을 놓지 않으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_중앙일보 "참선은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_동아일보
"참나를 깨달으면 일체중생과 한 몸이 되어 대안락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한 용심(用心)이 나오게 된다" _경향신문

- 진제 대종사가 이처럼 선풍을 휘날리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찌 불조의 정맥을 이은 종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_원로회의 의장, 종산대종사
- 구구절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라고 화두를 참구하라는 자비의 말씀이 귀를 때리고 마음을 울린다 _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 고승들의 선문답 속에는 날카롭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 _STX 회장 · 전경련 부회장, 강덕수
- '참 나'를 모른채 허둥지둥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깊은 산속에서만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존재다 _방송인 · 사진작가, 이상벽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古潭漉月)
향상일로의 고준한 공안법문 81칙
바른 깨달음의 표준을 제시한 참선수행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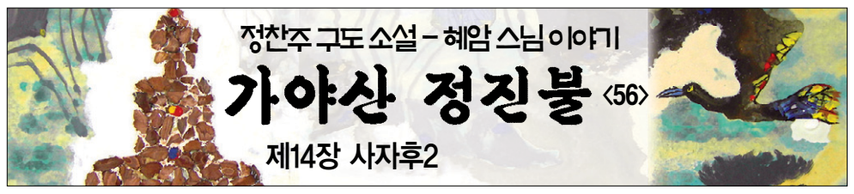
돌사람 크게 웃네(石人大笑)
참나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귀중한 발심 법문집



선백문백답
당대 최고의 선지식에게 직접 듣는다
실제 참선 수행자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_746_2256)

“마음 잘 쓰는 놈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여”



혜암은 선방을 개원하는 스님들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새로 생긴 선방을 찾아가 격려하곤 했다.

혜국이 제주도에 남국선원을 개원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입적하기 얼마 전에 상좌들을 데리고 간 일도 있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남국선원은 서귀포시 공동묘지 바로 위에 있었다. 혜국이 남국선원을 짓게 된 것은 성철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혜국수좌, 고향이 제주도지.”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절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절이 백 개나 됩니다.”

“선방이 없는 절이 절이가. 네가 선방 하나 지어라.”

결국 혜국은 제주도 일주도로를 돌면서 팔려고 내놓은 지 2년 된 목장을 사서 선방을 지었다. 혜국은 선방을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하나는 안거가 있는 대중선방이고, 또 하나는 한번 들어가면 일정기간 나올 수 없는 무문관이었다. 무문관은 감옥의 독방 같은 곳으로 하루 한 끼만 출입구를 통해 들여보냈다. 식판이 나오지 않으면 수행자가 삼매에 들었거나 그의 육신에 이상이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남국선원을 찾은 혜암이 혜국에게 말했다.

“혜국 수좌, 나 선방 좀 봐야겠어. 제주도에는 선방이 남국선원 하나뿐이니까. 계속 운영을 잘해나가야지. 선방이 없으면 절은 안 되는 거여. 서로들 힘을 모아 선방이 커나가도록 노력들 해야 돼. 그러니 내가 남국선원 선방에 좀 앉아 보고 가야겠어.”

혜암은 선방에 앉아서 선객들과 신도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그런 뒤 법문을 시작했다.

“뭐니 뭐니해도 참선밖에 없어. 참선이 제일이여. 내가 나를 모르고 하는 일은 모두가 꿈속 일이여.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여. 어째서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잘들 들어 봐. 관상불여복상(觀相不如腹相)이요, 복상불여배상(腹相不如背相)이요, 배상불여심상(背相不如心相)이라 했어. 관상이 제 아무리 잘생겨도 배 잘 생긴 놈한테는 안 된다는 것이여. 여기서 말하는 배는 타는 배가 아니고 배때기라고 하는 이 배 말이여. 배가 아무리 잘 생겨도 등, 등허리 잘 생긴 놈한테는 못 당해. 관상 중에는 등이 제일이여. 그러나 관상이든 배든 등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상법(相法)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잘 쓰는 놈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여. 알아듣겠는가. 그러면 마음을 잘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뭣고’ 하고 참선하란 말이여. ‘이뭣고’ 모르는 그놈이 곧 그 자리여. 참구하고 참구해서 무념위종(無念爲宗)이 되어야 해. 자식새끼들 그거 다 원수가 만난거여.”

혜암은 법문을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시자 손에 부축해서 다닐 기력인데 법문할 때만은 카랑카랑 힘이 넘쳤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법문이었다. 몸을 아낀다거나 체면을 생각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재가신도와 초보자들의 선방인 원당암 달마선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정의 신분을 잠시 잊고 천진도인의 모습으로 설했다. 보살이나 거사를 상대할 때는 그들의 근기에 맞게 문어체를 구사하지 않고 구어체 법문을 했다.

<처음부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가 자라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공부도 자꾸 자라나는 것이지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마나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공부는 자꾸 큽니다. 오늘 할 때 다르고 내일 할 때 달라요.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면 채소가 자라는 것같이, 눈이 뭉쳐지는 것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잘 모르는데 한 달 지나고 일 년 지나고 하면은 이 공부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니까, 안한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지마는 공부가 자라지를 못해요. 이렇게 손으로 자꾸 계속해서 비비면 뜨거운 열이 나지만 한두 번 비비고 좀 쉬었다가 또 비비고 하면 열이 나지 않는 것과 이치가 똑같아요. 이 공부가 헛것은 아닌데 여러분은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 이러니까 이 공부가 뭣인지 모르고 맛을 못 보게 되는 거요. 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도를 닦다가 보면 언젠지 모르게 참말로 안 닦고는 배길 수가 없는 환경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기연(機緣)이라고 해요.

기연이 도래하면 막 힘도 들지 않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공부가 해져버려요. 그냥 물러나지만 않으면 성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다고 물러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공부해보지만 한 가지도 재미없어 할 것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그때에도 그대로만 해나가면 자꾸 달라져요.

종자를 땅에다 심었을 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면 땅을 뚫고 일어나 싹이 트지 않습니까.

처사님들을 두고 보자면, 우리가 수염을 깎지만 이 눈으로 다른 사람 수염을 자라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라지요. 우리 ‘고기 눈’이 어리석어서 못 볼 따름이지 자꾸 수염이 이렇게 자라지요.

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없는 데다가, 알래야 알 수 없는 데다 대고 자꾸 굴을 뚫고 나가시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나요. 이 공부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절로 무슨 조화가 생겨나요.

오늘도 공부를 쌓아 놓고, 내일도 쌓아 놓고 그러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같이, 내일 새벽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불을 안 할라고 해도 성불이 저절로 돼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된다고 달마선원에 입실한 재가불자들이 염화실로 찾아와 하소연해 오면 혜암은 또 다시 어른이 아이 손에 구슬을 쥐어주듯 쉬운 말로 하나하나 그 까닭을 열거해 가며 법문했다.

<이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선지식을 못 만나 그런 것이고, 두 번째에는 나고 죽는 데에 무서운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간의 반연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도를 닦는 데 선지식의 인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혼자서 도를 닦는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간혹 혼자서 도를 닦아 깨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전생부터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닦아온 공덕이 있는 사람이지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깨친 사람은 아니지요.

두 번째는, 나고 죽는 생각에 무서운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사형선고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염라대왕에게 불려가 사형집행이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미국이나 소련 구경 간다고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살이 지금도 여기 안 온 모양인데 “빚만 갚아 놓고는, 내년부터는 여기 안 빠지고 꼭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일 년 동안 살 자신 있소.” 그러니까 그냥 다 웃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참 불쌍하고 멍청해요. 나고 죽는 것은 한 시간은 그만두고 눈 깜짝할 새의 자유도 없는데, 막 뒤로 미루면서 몇 만 년이나 살 것같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 천 분이 나와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간의 반연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해요. 세간 일에 욕심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것이지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일, 정치하는 일, 농사짓는 일, 살림하는 일이겠는데, 그런 세간일은 그만 두고라도 몸뚱이도둑놈 사랑하고, 이 몸뚱이도둑놈 종노릇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를 떨고 이놈 먹여 살리다 보면 남는 거 뭐가 있어요. 북망산천에 송장을 밀어 넣으면 결국에 가서는 풀이 되고, 화장터에 가서 꼬실라 버리면 재 한 줌이 되는데 그 재 한 줌 어디다 써먹을라고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허망한 세상이지만, 이 몸이 있는 이상 세간 일도 안 돌아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성철의 권유로 혜국은 제주도에 남국선원 지어

혜암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새로 생긴 선방 찾아 격려

기력이 없어도 법문할 때만은 카랑카랑 힘이 넘쳐

“뭐니 뭐니해도 참선밖에 없어 참선이 제일이여”

아무리 이 세간일이 꿈속 일이라고 하지만, 엊저녁에 좋은 꿈을 꿨더니 기분 좋다고 하듯이 허망한 꿈이지만 좋고 나쁜 차별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몸뚱이 따른 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등지고 도둑놈만 믿고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편지를 보내온 보살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간절한 답장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선공부를 시키어 보살의 본래면목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속에서는 바로 오늘이 추석 명절이라고 예를 찾되 사람에 따라서는 슬픈 사람 혹 즐거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한 정거장, 도살장에 나가는 소와 같이 슬픔의 길에 더 도착하였을 뿐이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리고 자녀들로 너무 걱정이 된다 하니 말씀드립니다. 오직 사람마다 제 복과 제 명을 타고 왔으며 이 세상에서 지혜와 복을 닦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니 걱정은 소용이 없는 일이오.

우리 인생은 하루 저녁 쉬어가는 나그네로서 부모님의 은혜가 깊어도 마침내 이별이 있고 처자권속의 의리가 중하여도 필경 이별이 있는 바, 비유컨대 새들이 숲속에서 자다가 명이 다하면 가는 길이 다른 것과 같이 이것도 허망한 꿈속의 일이오.

바로 말하자면 도를 닦아 나고 죽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짐승들이 새끼를 키운 뒤에 다른 적이 잡아먹는 폭이 되니, 어리석은 인정이 생겨서 걱정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어도 임시일 뿐 결국은 역시 허망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살려면 참선공부를 하여 본래면목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세상만사 꿈과 같이 생각하여 지혜 방편을 잘 써서 한 세상 안 나온 폭 잡고, 죽은 폭 잡고 거짓으로 멋진 연극배우가 되어 남을 도와주시길 바랄 뿐이오.

어리석은 중은 정처 없는 구름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생활하기를 좋아하여 해인사 원당암을 언제 떠나서 만행을 할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런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시간을 아껴서 인정에 끄달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념으로 정진하기를 축원하며 지극히 빌고 비나이다. 이만 줄이오.>

<계속>



Dr. 황의 바른 자세 · 바른 생활

❸ 체형교정 운동

체형교정 '일시적' 인 한계 넘어야

"만병통치 약입니다~" 10여 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간간히 보이던 차력사나 약장사들의 핵심공략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필자의 생각에도 만병통치란 말만큼 병 치료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병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되도록이면 빠르고, 손쉽게 통증을 없애고 싶어 하기에 최대한 빨리 그 기대에 부흥하고자 무리하게 진통제 의존 치료에 편중합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수술위주의 치료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하며, 진통제 · 항생제 치료의 의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요추 카이로프랙틱 시술 모습.

카이로프랙틱은 비수술 치료이면서, 진통제 치료가 아닌 자연그대로의 치료이지만, 카이로프랙틱도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척추와 인체의 관절에서 교정 시 발생하는 '우두둑' 소리를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골반과 척추를 위한 뼈 교정만을 원하여 필자를 찾는 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15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5만명 이상의 체형교정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뼈 교정의 단점은 일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물론, 동종업계의 다른 전문가들로 부터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더라도, 10분 정도 걸음을 걷게 하고 다시 교정을 해 보면 또다시 관절에서 교정될 때 유발되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즉, 교정을 계속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통증이 있는 분들께 비수술적, 통증제가 아닌 자연그대로의 치료법에 있어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명 있어 예를 들어 봅니다. 그 분은 어릴 적부터 격투기 계열의 운동을 많이해 저와 다름없는 추나 요법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본인의 뼈를 맞추기에는 한계점을 느껴 저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초진 시 검사사항에서 볼 때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대에서나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골반근육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양반다리로 앉을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20세 때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소 절개 수술인 '레이져 수핵 제거술' 을 받았고, 그 후로도 계속 만성적인 척추질환과 좌골 신경통 때문에 병원을 전전긍긍하였으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국내 최고의 한의대에서 교수 특진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병을 '그냥 업으로 알고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먹던 중에 필자가 미국 척추 신경전문의인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저를 선택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어떠한 추나 시술도 하지 않았으며, 교정체조와 더불어 골반이 틀어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 부위의 근육을 지속적으로 풀어 주어 6개월경과 시, 비로소 본인이 제일 하고 싶다던 양반다리로 앉을 수 있을 만큼 치료했습니다.

그 환자는 추나 요법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이런 국민체조 같은 교정운동과 근육교정으로 자신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센터에 그만 다닌 후 만났을 때도 끊임없이 자가 교정치료를 해 점점 좋은 상태로 발전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치료의 영속성과 완치에 있어서 가장효과적인 것은 순간적인 척추교정이 아닌, 척추와 골반이 비틀어지는 원인이 된 과도하게 긴장한 근육의 부위별 맞춤체형교정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병 치료에는 일괄적인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세대별 치료법이 바뀌듯, 항상 병에 대한 치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맞다!' 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놓기 전에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무궁무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며, 이 약을 얻기 위해 갖은 암거래와 수없이 많은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좋은 약이기는 하나 남용하면 안 되는 '항생제' 뿐인데도 말입니다.

음식의 맛은 혀가 알듯, 진정한 의술은 환자가 알기 마련입니다.

체형불균형으로 인한 고통으로 수많은 치료를 해 보았음에도 발전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 할 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형교정 운동입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불교와 무술이야기

❸ 달마대사와 무술

소림사 무술 혜가 영향 추측

소림무술은 체계적이고 전통적인 무술입니다. 소림사에 무술을 제일 먼저 전래했다는 사람이 바로 인도의 승려인 달마 대사입니다.

달마라는 말은 빨리어로 '담마'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서 '달마'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法(법)입니다.

보리달마는 남인도 마드라스 근처 칸치푸람 출신으로 520년 중국 광저우[廣州]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10월에 선행으로 이름 높았던 양(梁)나라 무제(武帝)와 만났는데, 보리달마는 선한 행위를 쌓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해 황제를 당혹케 했습니다.

그 뒤 보리달마는 뤄양으로 가서 소림사의 동굴에서 매일 벽을 향해 앉아 9년 동안이나 좌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오랜 기간 깊은 선정을 닦았음을 말해주는 설화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리달마는 부처로부터는 28번째의 조사(祖師)로 여겨지고, 중국 선종(禪宗)에서는 초조(初祖)로 간주됩니다. 보리달마는 부처의 심적 가르침에 돌아가는 방법으로 선(禪)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일파를 선종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달마가 전했다고 하는 경전은 <능가경> <역근경> <세수경>이 있습니다. <능가경>은 팔만대장경 안에 등록되었지만, <역근경>과 <세수경>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불교적이라고 하기에 힘이 든 무술을 위한 동작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구되는 중국의 무술논문들도 <역근경>과 <세수경>은 청 시대가 된 후에 편찬되었다고 하는 설이


혜가 스님과 달마 대사.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전 말고라도 오랫동안 전수되어 왔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 권법도, 실제로는 청나라 시대 이후 전설화 된 것이 많아, 정말 수백 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한 표 투표하고 싶습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책 한권으로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대함과 전문성 때문에 책으로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가 무술을 전수했다면 비교적 많은 시간 수련생을 가르치고 전수했어야 하는데 역사적 달마의 행적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추론 해 보건데 달마가 소림사에 무술을 전수 했다고 하는 설은 그가 법을 전한 2대 조사 '혜가' 의 영향이 큽니다. 혜가는 무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녀서 달마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팔을 자르는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소림사에 무술을 전수한 사람은 '혜가' 의 성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혜가가 중국불교에 남긴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영화에서 보면 중국승려들은 한손으로 합장을 합니다. 이는 외팔이 혜가가 합장을 하는 모양과 같습니다.

문화의 생성과 발전은 환경에 많이 지배가 됩니다. 필자는 수 년 전 인도의 참 맛을 알기 위해 인도 여름에 해당하는 5~6월 사이에 인도를 한 달간 여행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굴에 천을 왜 가리고 다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숨을 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지역적 환경 상 건기에는 엄청난 먼지가 눈에 보입니다. 우기 때는 볕 볼 날이 얼마 없이 비가 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 상, 쉼 없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권법 같은 무술은 생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몸으로 하는 권법이 왜 중국에 유난히 발달하였을까요? 인접해 있는 국가 중에 몽골은 힘의 우열을 가리는 씨름 정도만 있지 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술은 없더라도,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의 특성상 말을 잘 사용하였고, 이는 빠른 조직력의 기병대로 구성되어 중국전역은 물론 유럽까지 진출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몽골에 권법이 존재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엄청나게 추운 날씨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엄청난 추위에 옷을 껴입고 방안에만 있어도 추운 마당에 밖에 나가 무술 단련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황현수 :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도자기 괄사판 효능 가장 좋아

필자가 괄사(刮痧)를 알게 된 것은 48년 전 전통 비방약을 접한 뒤 손 괄사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 시초였다. 남편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약물의 독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계란기름' 을 알게 되었고 '명명산' 을 알게 됐으며 손이 질병치료 보조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건강능력' 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인체 구조에 따라 괄사판(刮痧板)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다. 괄사판 재료도 물소뿔, 나무, 옥돌, 금속, 도자기 등 여러 가지로 써 보았더니 도자기 괄사판이 괄사 효능 면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도자 괄사판을 제조했고 이 도자괄사판 제조방법과 7가지 괄사판은 모두 특허청으로 부터 제조방법의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취득하였다. 괄사효과가 너무나 오묘하여 <괄사! 그 놀라운 신비>라는 책을 저술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괄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동영상물도 만들어 저작권을 등록 했다.

실로 길고도 험한 수행과정 이었다. 남편의 중병을 극복해야겠다는 발원으로 시작된 '국순려 건강 능력개발법' 은 인간의 몸이 강건해야 성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다는 원력으로 회향된 것이다.

(1)신체에 미치는 영향

① 혈액 –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보내지는 동맥혈은 속력이 정맥혈보다 굉장히 빠르게 순환한다. 그러나 혈관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은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많아져서 혈관벽은 좁아질 수 있다. 괄사 시술을 함으로써 동맥혈관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은 박리가 되어 배출될 뿐 아니라 혈류도 빨라지며 도자 괄사판의 원적외선의 진자 작용(체액에 파장을 일으켜 혈관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이나 혈액 속에 섞여 있는 중금속, 콜레스테롤 등이 혈액에서 배출되어 나가게 하는 현상)에 의해 더욱 맑은 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② 신경 – 1개의 신경원세포는 2개의 돌기를 가지고 있고 1개의 신경원세포를 보조하기 위해 그 열배가 넘는 교세포가 있다. 신경세포가 존재함으로써 인간은 고도의 정신작용과 육체적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괄사는 신경세포의 자극, 흥분, 전이 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대체요법이다. 인체의 신경세포는 혼합신경 세포 다발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누워서 옆으로 돌아눕지 못하는 사람도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이 퇴화된 신경세포의 재활을 돕는데 그 효능이 검증되고 있다.

③ 림프 – 정맥혈은 동맥혈보다 훨씬 느리게 순환하고 림프액은 정맥혈관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순환하되 정맥혈류보다 훨씬 느리게 순환한다. 동맥혈의 약 1/700 속도이다. 괄사시술은 림프관을 확장시켜주고 림프구 생성을 촉진시키며 골격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순환하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순환하는 림프액을 자극하여 림프액 순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체내 면역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질병예방에 기여토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골격 – 괄사는 골격계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돕고, 골격의 형태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골격의 교정이 필요할 시는 손으로 만지면서 도자괄사판으로 적절하게 다양한 기법의 괄사시술을 6개월~1년에 걸쳐 꾸준히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골격 성장은 매우 고무적으로 도와주며 노년들에게도 골다공증 예방, 골절예방을 도와준다. 또 잇몸이나 치아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작용한다.

⑤ 근육 –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스포츠맨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일상생활은 근육운동과 직결되어 있다. 인체의 약 600개 골격근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발달 정도가 다양하다. 상체만 많이 쓰는 사람은 하체근육이 아주 빈약하기 쉽고 하체만 많이 쓰고 상체를 별로 안 쓰는 사람은 그 반대현상을 보인다. 괄사시술에서 전신괄사는 이러한 불균형적 근육형태를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근육의 피로를 해결해 주고 진통효과를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비만도 해결 해 준다. 젖산(lactate)이나 요산, 케토산(ketoacidosis)등은 운동을 하지 않는 근육 속에 쌓여 있게 되면 근육피로나 비만을 일으킨다. 괄사는 이러한 산성 물질이 근육 속에 적체되어 있는 것을 배설시켜 줌으로써 근육 피로회복과 함께 피부가 강인해 지게 한다. (02)557-1628~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메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특별지도
1. 실천2주, 특수속성반
2. 귀신쫍는 비법
3. 내화역수, 내정법, 고급 포태법
4. 특수비법 역학, 택일, 성명학, 궁합
5. 신내림, 신병, 상담한영
010-2484-5001 스님에 한해
031)943-8094 특별 할인혜택
출장지도 가능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역학 속성지도 30년
자격, 교수 법납
역학 10년이상 기타
인연보살, 종단 최고어른
20~30억
재력가능 회수 확실
02)907-5858
010-2693-7712

김 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사주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동양 철학 배우실 분
명리학 성명학 주역 (육효)
배울 곳 : 경북 구미
숙식제공 가능
054)972-9872
010-6208-5555
원장스님 직접 강의

50세 후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5346-6742

구례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7-621-6328
061)781-6328

부전스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문수사
011-574-33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9317-918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50대
010-4526-0336

조용한 암자에서
공양주를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절에서 숙식하시면서
봉사하실 분
●45세 미만 여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환영
016-302-7711
032)522-8131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용문
010-8922-116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울산 언양
052)264-5471

秘 法 강 의
'초종파! 비구, 비구니여, "본 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치유(최면), 관상, 수상 보는 법, 신병 잡는 法, 숫자함의.
제2강 : 氣치료, 카이로, 레이키, 천문열림, 업보 격국풀이,
제3강 : 약손, 7일 道人비결법, 정골요법, 일침요법, 정신치료, 육체치료
(견비, 허리, 무릎통처방, 중풍, 정신병)
*침, 특수활용법(한의학박사 특별강의)
강의시간 : 매월 매주 화요일~수요일 10시~16시까지 (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070-8861-3359 010-9166-6986 회장 핸드폰 010-9027-3117 스님
- 좋은 인연 되소서 -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문의 ☎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소원성취 · 영험도량
잠시 한, 두달 백일
마음공부 용맹정진
소원기도 하고 싶으신분
앞일 알고 싶은 분 오세요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행자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卍 영대암
각종 어려운 사연
남녀문제 절대 비밀 상담해 드림
매매, 사업, 부적, 작명
출장상담 가능
010-5306-8843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입종공고

본 종 종정예하 태화당 석가산대선사께서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인 용성조사의 은, 법, 강, 율 상좌이며 11.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학생대표였던 봉암선사로 부터 유일하게 은, 법, 강, 율을 이어받은 상수제자이시며 가야산해인사와 금강산 장안사의 양대 강맥을 전강한 대강백입니다.

또한 대은율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율맥의 원조인 조선불교중흥률 제6조인 용성조사로부터 유일하게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제7조 봉암선사에게 제8조로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한국불교율맥의 전통계승자이시기도 하며 가산대선사께서는 특히 600여년전에 단절되었던 점찰참회법을 중흥해 모악산 금산사, 팔공산 동화사, 속리산 법주사에 전수해 점찰중흥조가 되어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1. 본 종 총림 (선, 강, 율) 창건에 시주하실 승려 및 재가불자를 모십니다,
2. 본 종에서는 등록 된 승니를 위하여 노후 (65세 이상) 복지제도를 장려 함.
3. 입종하시는 승니 또는 법사는 사암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급과 동시에 도첩이 필요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4. 각 교구 종무원장 임명 받으실 승려를 환영합니다,
5. 본 종에서는 개인사찰의 사유재산을 종법에 의거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에 기증하는 사찰만 공찰로 인정 됩니다.
6. 점찰참회법(전생록) 법회를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 바랍니다.
7. 종덕, 종사, 대종사, 법계를 받고자 하시는 승니 신청 받습니다.
8. 승가대학원 제2기 승정학과에 입학하실 승니 (종사) 신청 받습니다.
9. 종정예하께 입실건당 하고자 하시는 승니는 신청 받습니다. (종정예하 법통수호 보존회 / 010-5894-0900)



대각교단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예하주석사찰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원융사
◆ 총 무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대승사
◆ 접수문의 : 053)325-5288, 325-0400. 팩스 053)325-484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620평
- 가액 : 3억 7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2억 7천

- 위치 : 부산
- 법당 및 요사 : 30평
- 부지 : 96평
- 가액 : 3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300평
- 인법당 : 70평
- 산세수려
- 가액 : 6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사찰

- 총부지 : 370평
- 법당 (41년생), 요사(방3칸), 산신각, 용왕각
- 뒷산, 바다전망 최고, 평지, 주차장
- 도량 내 100년 된 소나무 다수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9987-4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사찰 · 실버타운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5793-4800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000원
- 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1동
-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시장옆
- 평수 : 40평, 법당 2층 35평 지층 공양간 40평,큰방2, 창고 2개
- 신중탱화, 후불탱화, 지장보살, 아미타, 관세음보살 영가단 등
- 최고급 시설 완벽.
- 시설비 없고, 보증금 3천만원 월 18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주방기구 일체지급

010-5462-68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 북산 사거리
- 평수 60평
- 현 법회중
- 3층 건물 중 2층
- 주차 시설 양호
- 가액: 보증금 포함 집기일체 몽땅 6천만원

054)972-9872
010-6208-55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대지)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단독건물사찰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 (지하철역 근처)
- 건물(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상담후 조절가

010-6780-6271
053)428-1133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동읍 월잠리
- 대지 200평, 건평 8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안내

010-5040-758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요지
- 신축건물 4층,
- 실평수 52평●시설 A급
- 가액: 보증금4천만원 월 110만원,시설비 2,500만원 경기도 이전 관계로 (급)안내함

010-8786-08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신정동(2층)
- 최고시설, 최고위치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52)269-0232

포 교 원 안 내

- 현 포교원(60평) 인수하실 분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입구, 전망좋음
- 지하철 2호선 구명, 구남역 2분거리
- 가액: 전세 5천만원(월세가능)

051)338-8607 주간
051)338-8606 야간
011-9515-8606

단양사찰안내

- 대지: 321평, 건평 50평
- 법당1, 방3, 욕실2, 주방 1, 공양간 1,
- 하천부지 사용가능
- 석불 1억 정도로 조성되어 있음
- 공기 맑고, 산세 수려
- 법당일체
- 몸만 들어오시면 되심
- 가액: 2억 1천만원(조정가능)

010-3130-552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다실별도1
- 2,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2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야간)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1억 5천만원

010-8675-40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전 앞
- 평수 50평, 현재 법회중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상담실 및 실방, 목욕탕,거실, 방2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일체 시설비 1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41)567-0391

대나무 숲속 고요한 절

- 위치: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11평
- 법당 18평, 굴법당 있음
- 요사채 큰 2동,
- 각 42평, 45평
- 가액: 4억

010-3551-5674

암자 토굴터 안내

- 위치: 청북 청도군 IC에서 15분거리
- 평수 530평, 마을 뒤
- 전지, 지하수, 물, 다 되어 있음
- 관리지역
- 가액: 3,800만원

010-4707-8090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원하시는 금액에 양도함

010-3553-7897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부 산 대 사 찰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국유지 : 450평 (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9억 7천만원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요사채3, 방 3,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수락산 입구
- 경관 좋은 대단위아파트단지 대로변
- 평수: 67평, 주차장 有
- 가액: 보증금 삼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 모든시설 완벽하며 말 그대로 몸만 오셔서 즉시 법회가능
- 주소창에 http://cafe.daum.net/dia-temple 검색하시면 법당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010-22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인근 20분거리
- 부지: 2,413평 ● 임야: 12,442평
- 법당(목조건물) 삼포지
- 요사채1동, 수행처 1동, 도량주변 기암괴승리 명당부지 청정지역
- 귀농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현지 답사 후 절충가능

010-8373-37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 2.2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죽은 것과 같다”

강 사 : 세준 스님 (한국풍수지리연구원장)
일 시 : 2010년 1월 16일
주 제 : 불교와 생활인테리어
장 소 : 東大 정각원 대각전 법당
주 최 : 東大 정각원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다. 이후 불교는 백제, 신라로 전파돼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로 정신과 문화를 꽃피웠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불교는 더욱 왕성하게 발전하게 됐다. 태조 왕건은 불교를 국시로 내세우고 고려를 다스려나갈 통치 이념을 세웠으며, 그러한 불교정신은 고려의 모든 역사에 배어들었다. 왕건은 당시 고려를 창건할 때 도선 국사의 풍수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도선 국사는 신라말의 승려로서 풍수설의 대가였다. 풍수지리학의 역사가 신라 말까지 올라가는 것도 도선의 생존연대가 있기 때문이다. 태조 왕건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도선 국사. 도선 국사가 말한 풍수지리학을 한국풍수지리연구원장인 세준 스님을 통해 불교와 풍수의 상관관계에 따른 우리의 생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준 스님.

#불교와 풍수의 관계

풍수사상에는 외호연(外護緣), 단월연(檀越緣), 납자연(衲子緣), 토지연(土地緣), 도연(道緣)이 있습니다. 대혜보각 선사의 <서장>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장>은 당대 최고의 선지식과 벼슬하는 재가불자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활용한 편지글인데, 이 <서장>에는 위산영우 스님이 앙산혜적 스님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곳에 법당을 건립하고 종지를 세우려면 다섯 가지 연이 갖춰져야 비로소 성취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토지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연은 본인이 수행하면서 머물고 있는 토지의 인연을 말합니다. <서장>에서는 “주지(住持는 토지연을 말함)에 마장(魔障)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찰이라는 장소는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찰의 터를 정할 때는 풍수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도선 국사는 아시다시피 풍수사상의 대가였습니다. 그 분은 땅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풍수는 미신적인 것이 아닌 매우 과학적인 사상입니다. 풍수는 과학적 사상에 근거한 사상이며, 생명존중과 연기사상을 담은 부처님 가르침과도 밀접한 실천학문입니다. 또한 풍수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상입니다. 풍수의 근본적인 의미는 땅이나 물의 흐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도선 국사와 무학 대사를 비롯한 많은 큰 스님들이 도읍지를 정하거나 사찰 터를 잡을 때는 주변 환경을 반드시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면 유달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찰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공간을 선(禪)으로

풍수는 불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풍수심리도 곧 마음과 형통하는 관계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자연스레 사람을 심약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심신은 자연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잘못 받게 되면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런 개념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불교를 풍수심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 건강한 삶과 복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생활은 당연히 우리 생활공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과 환경, 삶의 생활공간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모두 우리의 건강, 심리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을 진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바로 불교의 선(禪)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상관관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풍수심리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과정속의 합일 되는 것이 바로 이 풍수심리입니다. 이런 풍수심리는 공간적, 시간적, 방위적인 성향에 따라 다양한 심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가지의 요소는 불교의 건축과 풍수의 삼대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삶의 근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16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건축과 환경, 인간이 잘 어울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바위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됩니다. 그 장소에 바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풍수는 바로 삼법인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멈춰있지 않다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시간적인 개념은 바로 계절이라던지 절기, 오전과 오후 등 만물소생의 때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제행무상(諸行無常)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상의 존재이죠. 제법무아(諸行無我) 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느 장소에 가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공간적인 심리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공간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기억, 뼈의 기억, 뇌의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95%가 무의식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5%의 인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억장치들이 상호작용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나쁜 숨을 쉬기도 하고, 좋은 숨을 쉬기도 합니다. 나쁜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몸에는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 시간적 영향에 따라 방위적인 요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방향성은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이죠. 이런 자연의 주파수가 센서처럼 작용을 해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의 ‘향’은 바로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이러한 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의 발현이 바로 풍수적인 심리작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은 모두 불교의 삼법인 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풍수의 삼대요소가 모두 종합건축, 인테리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인테리어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하는 악세사리도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귀걸이 하나를 귀에 걸더라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 환경은 우리의 도반

옛날 건축물들은 모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 만들어 졌습니다. 현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한 것이 바로 인공건물들이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풍수지리에 의해서 다양한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여천군 중천마을에 최다 쌍둥이가 태어나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이나, 박사마을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의 주실마을 등은 모두 이런 풍수적인 기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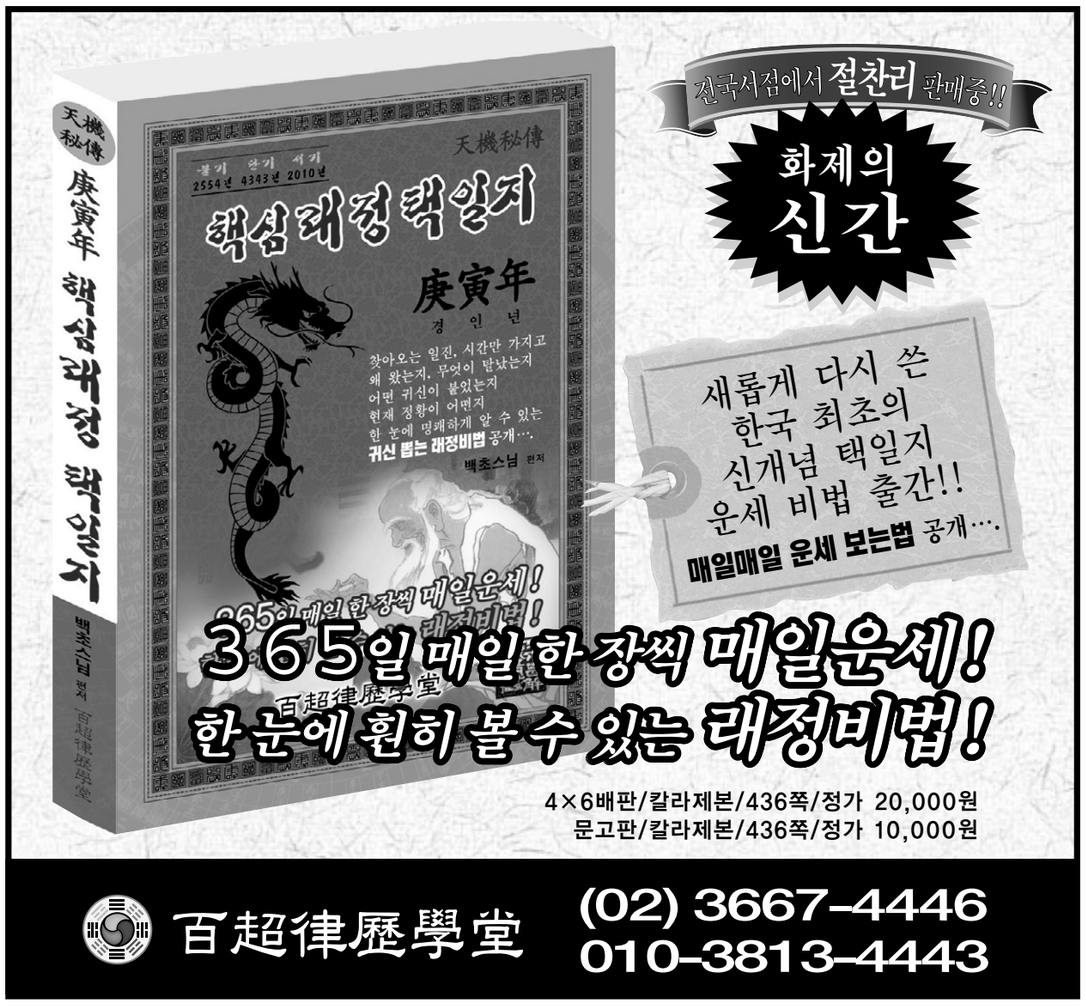
이처럼 모든 풍수사상에는 일상에 반드시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도반’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더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귀기울이며 어떻게 생활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정리 = 이은정 기자

불교처럼 풍수심리도 곧 마음과 형통하는 관계
자연은 정복의 대상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동대 정각원 대각전 법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청중들.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㉒ 오수도

고요함 속에 소쇄하게 들려오는 찻물 소리

따뜻한 오후, 초옥 안에 처사(處士)는 포갑(包匣)한 서책에 기대어 단잠에 빠져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거독서에 여념 없던 그는 처마 안까지 밀려들어온 오후 햇살에 몸과 마음이 어느새 아득해졌다. 가끔씩 붉은 머리의 단정학(丹頂鶴)이 오르내리며 길게 울고 찻물 끓는 소리가 소쇄(瀟灑)하게 들려올 뿐 주위는 고요했다. 자연의 때 묻지 않은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순간, 처사의 잠은 오히려 깊은 명상에 가까울 것이다. 자연과 물아일체 되는 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가장 자유롭고 평온해지는 때이니 긴 세월 수많은 문사들은 산거(山居)를 꿈꿨다.



이재관 '오수도', 조선 19세기, 수묵담채, 122.0x56.0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이재관(李在寬, 1783~1837)은 '오수도(午睡圖)'에서 인물과 자연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경물과 대상을 포치시킨 개성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처사가 누운 자세와 같은 방향으로 그림의 구도가 사선을 이룬 점에서 보면 마루와 처마는 물론이고 좌우의 배치된 소나무와 바위 또한 그 끝이 사선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재관이 자연합일 된 처사의 모습을 훌륭히 표현한 점이며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다.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말없이 의연한 소나무와 바위는 군자의 상징물로 처사의 얼굴 표현과는 달리 호방한 필치로 그려졌다. 몇 번의 붓질로 속도감과 함축미를 드러내고 다시 진한 먹으로 윤곽선을 강조해 농담 대비의 효과를 주니 전체적으로 평온한 주제 안에서도 활발한 기운이 느껴진다. 소나무와 바위 아래에는 다시 학과 동자가 서로 조응하고 있다. 학의 울음소리와 날개 짓에 주인이 깰까 놀란 것인지 동자가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이다. 동자의 시선이 학을 향하는 순간 두 경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그림의 동적인 요소인 이 경물들은 고요한 풍경 안에서 최소한의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산중에 처한 처사의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맑은 차 한 잔을 마시고 곁에 세워둔 거문고를 연주하니 그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학의 모습이 떠오른다. 초옥 너머의 빈 여백을 상상으로 채우듯 그림 속의 동적인 상징물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간일하게 표현된 동자의 모습에서도 특히 얼굴만큼은 섬세한 붓질을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화목 중에서도 초상화에 뛰어났던 이재관의 이력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재관은 19세기에 전문적인 직업화가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 사실 그의 생애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인물화에 뛰어나 정식 궁정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조의 어진(御眞, 임금의 초상화)을 베껴 그린 공으로 벼슬까지 얻었고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소개로 문인사대부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기고 있다. 김정희의 문하에 있던 조희룡(趙熙龍, 1789~1866)과는 또한 평생의 지기로 교유했는데 그의 문집에는 이재관이 초상화에 능했을 뿐 아니라 화조화를 잘 그려 일본인이 매년 부산을 찾아 그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19세기 조선 문예의 중심에 있던 김정희와 조희룡과의 관계를 통해 이재관은 문인화의 전통을 충분하게 학습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경을 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김정희와 조희룡은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의 교유를 통해 차를 애호하던 북학파 문사들로 이들과 교유했던 이재관 역시 차 문화를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그림에 등장하는 다동(茶童)의 표현 역시 예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탁 트인 구도와 격조 있는 필치, 담청과 담황으로 맑게 채색된 '오수도'는 19세기 토착화된 문인화풍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며 뛰어난 차 그림으로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⑲ 운문사 새벽예불



겨울이었다. 새벽은 차가웠고 도량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을 깨우는 것이 햇살만은 아니었다. 도량석 목탁소리가 어둠을 깨우고 어둠을 지나온 푸른 눈빛들이 그 어둠을 깨웠다. 북소리, 종소리, 운판소리, 목어소리가 시방삼세에 깃들어 법을 전했고, 새벽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부처님 전에 모여 앉았다. 모여 앉은 눈빛이 아득한 시절의 영혼을 불러오고 차갑던 불상의 눈은 따뜻해졌다. "지심귀명례" 누구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지극한 목소리가 서로의 귓가를 울리고, 이내 탑처럼 쌓인 예불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운문사가 보존하고 하고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은 새벽예불이다"며, 법당을 가득 채웠던 예불소리와 독경소리는 장중한 '음악'이었다고 그 때의 감흥을 적고 있다. 아직도 도량은 어둠 속에 있고 새벽은 차가웠지만 법당 문살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는 따뜻했다.

詩가 있는 도량

▪ 우주가 한 살 더 늙었다

하늘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도
한 세월 흘러가는 것 못내 아쉬워
눈치도 없이 주룩주룩 눈물을 흘린다

누가 겨울비라고 무시하는가

새벽잠 떨치고
창가에 얼비치는 주름살 몇 개
그 틈새를 비집고
무덤덤하게 끌려 나오는
캘린더용
새해
아직 펼치지 않은

발걸음이 무겁다
비에 젖는 이승의 새해

우주가 한 살 더 늙었다

–윤범모, <노을氏, 안녕!>에서

옛 판화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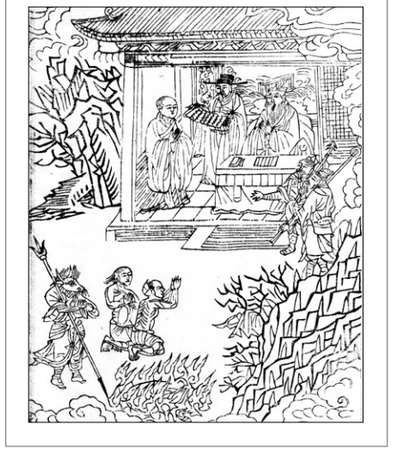
두 왕이 법을 묻다 이왕문법(二王問法)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조주 스님이 연나라 왕과 조나라 왕에게 법문을 내리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종심 스님의 호는 조주, 시호는 진제, 법명은 종심, 속성은 학씨이다. 778년 산동 임치현에서 태어나 숭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남전산의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5) 문하에 입문해 법을 이었다. 80세 때부터 조주성(趙州城) 동쪽 관음원에 머물러 호를 조주라 했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시주를 권하는 일이 없어 고불(古佛)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897년 120세로 입적했으며, 제자들에게 사리를 줍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조주 선사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 것은 100세가 넘어서의 일이며 조나라 왕인 왕용과 연나라 왕인 유인공이 전쟁을 시작하려다가 스스로 멈추고 조주 스님의 설법을 청하여 들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주 스님은 왕을 보고도 단정하게 앉아 일어서지 않자 연나라 왕이 물었다. '사람의 왕이 존귀합니까? 법의 왕이 존귀합니까?' '사람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의 왕이 존귀하고, 법 가운데 있게 되면 법왕이 존귀합니다.' 이에 연 왕이 승복할 따름이었다. 왕들이 설법을 청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세존께서는 한 번 명호만 칭념해도 죄가 소멸되고 복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왕들의 선조들께서는 어떤 삶이 그 이름에 접해 입만 떼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장군이 대왕과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렇게 되면 이 노승은 역시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지 않을 것이오.' 선봉장은 부끄러워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이 본문은 '7살 먹은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자라면 내가 물을 것이요, 80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이라면 내가 가르치리라'고 늘 강조하신 조주 스님의 말씀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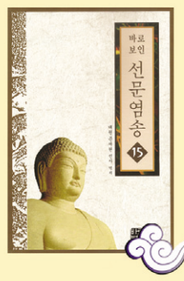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왕문법(二王問法)'.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알림
위의 도판이 767호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앙산, 향엄, 임제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을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바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대행 스님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한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등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찰나에 백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항상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들고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이 아니 된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고 치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주장자로다가 치는 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죠.

그 세 가지를 따져 본다면,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것도 그놈, 작다고 하는 것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그놈, 바로 '나' 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현재로 따져서,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 본다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나조차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찰나찰나에 그냥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일거수일투족 그냥 행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고 듣는 거와 가고 오는 거와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찰나찰나에 화(化)해서 돌아가느니만큼 바로 시공이 초월됐다는 말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려서, 그거를 번연히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몽땅 그 자리에다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무효인 것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못살든 잘살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있는 것이 바로 확증이 돼야 내가 스스로 부처고, 내가 스스로 부처니까 내가 스스로 법을 행하고, 내가 법신(法身)이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항상 끄달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안으면 어떻습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안고 삼보에 귀의한다,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한다.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전체,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體)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그 성종은 바로 내 성종이요, 그러니…. 성종이라고 한 게 거꾸로 됐나요? 종성(種性)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 거꾸로 됐으나 바로 됐으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법도, 행하는 것도 모두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일체가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믿는 것도 법이다. 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배우는 것도 우리요, 번뇌를 끊는 것도 우리요, 이루는 것도 우리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추어진 청각 지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이러한 여섯 가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육근이 그냥 행한단 말입니다. 보시다 지계다, 인욕이다 정진이다, 선정이다 반야다 하는 것도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려 놓고 가닥을 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도리구(道理句)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를 자기가 가닥을 치지 못하면 어수선 산란 하기 때문에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하고 몰아부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시작도 끝도 간단하죠. 모두가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것이고, 그놈이 하는 것이니까 바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쭉 벌려 놓고 아리송하게 이건가 저건가 애쓰지 마시고, 몰랐든 알았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근본 자체는 각자 바로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있으니까 여기에다 다 놓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가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딴 짐승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건지려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건지기 때문에 '나 아니 되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아픔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또 더불어 같이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있죠,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죠. 그러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이 그냥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 옆댕이에 붙을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차원에 따라서, 붙고 안 붙는다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항상 '그 간단한 거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마는 내가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 이런다고 얘기를 가끔 하죠. 그것이 뭐냐?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변해서 금방 나투어서 그냥 딴 걸로 바뀐단 얘기죠. 우리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하는데 내가 인군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신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공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척수가 내 척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통틀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한 몸뚱이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나다, 내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거를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게 없고, 내거다 하고 세울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 세울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묵살해 버리고 '모든 거는 당신 자체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 · 팩스 · 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buddhanews.com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25면에서 계속

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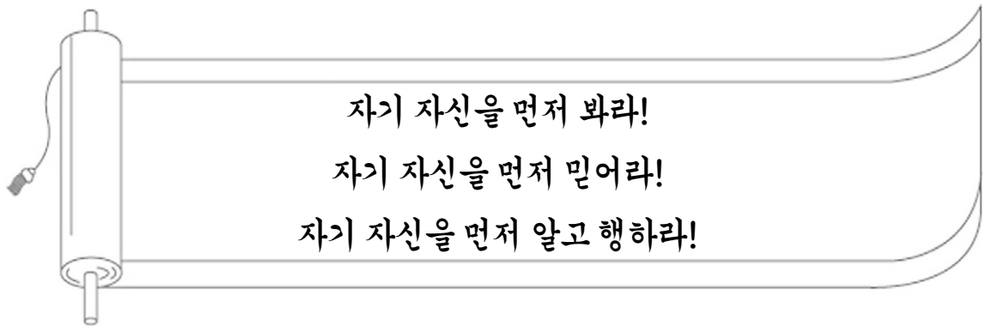
지금 뭐를 좀 긁적거리다가 내려왔지만, 거기를 보면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 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 하고 물었다면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하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했지 진실로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 놨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빼놓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느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지, 또 미래로 가서 어느 주머니로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백지장 사이를 뛰어넘죠. 우리 마음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것만, 이 세상살이가 고정된 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 나라고 내놓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무디게 그냥 얽매이고 애써야 됩니까?

눈물 나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만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뭘 그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애탄지탄합니까? 인생은 지금 요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떠 있는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그 가고 옴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옴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의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이 주머니 속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또 다른 모습을 해 가지고, 만날 이 주머니에서 뱅뱅 뱅뱅 뱅뱅 몇 생, 아니 세세생생을 돌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 번을 거푸거푸 태어나야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간에 끼리끼리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습에 의해서.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사람 모습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자체, 바로 자기가 텅빈 그 자체여서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엔 여여하게 그대로, 세상법이 그대로 즐겁고 그대로죠. 내일 죽든지 이따가 죽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잘 이끌어서, 망하게 가는 길도 스스로 잘 가게 만듭니다. 주인이 있어서 잘 가게끔 하는데 왜 잘 못 갑니까? 믿고 안 믿는데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어떠한 분야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다 그 한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리해서 이런 걸 쓸 때는 이런 걸 쓰고, 저런 걸 쓸 때는 저런 걸 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化)해서 나투면서 쓰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들이고 낸다 할 때, 낼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갖가지 용도대로 쓰지만 들일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발전소가 하나라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가지각색으로 쓰는 전력이 다 한 발전소에서 나갑니다. 그러는데 전력이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전력은 나가는 게 육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그 공(空)한 가운데서 출현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실천을 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아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가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올라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 잘한다고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이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혔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까요,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모두 먹여 살리고 있고, 구정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핏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바다로 해 주고 채찍질을 할 땐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다.

또 아주 맨 밑바닥에 있는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한번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맨 밑바닥에까지 태양열이 갈 수가 없죠.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이고, 나같이만 산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이럴 겁니다, 아마. 산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체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 하면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고 수행한 거리도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세생생에…, 어떠한 물체든지 다 수레같이 바퀴가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거든지 중심이 끼워져 있어요. 중심이 끼워져 있으면서 그 중심은 움죽거리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해서 바퀴를 구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퀴는 바로 중심의 심봉에다가, 사람의 근본이 저 심봉이라 하면 그 심봉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맡겨 놓고'라는 언어도 붙지 않죠. 그냥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까 그냥 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살림살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심봉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 왜 딴소리를 합니까? 딴청을 하고, 딴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금방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껄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야 그건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커녕 얼굴이 찌푸려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열이 치밀고 이러죠. 내가 그만한 힘이 있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봉이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떤 용도로 바퀴가 굴러도 아주 서슴없이 그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형제법우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럽시다. 뭐 별난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만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와서 주머니 속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한 분이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 같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딨습니까? 서로 도반입니다.

질문자 1(남): 스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모든 것을 둘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진도가 좀 늦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가, 지금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듭니다.

큰스님: 편히 앉으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걸랑은 '시기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걸랑은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똑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댁은 그냥 어느 한 개체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뚱이가 움죽거리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울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뉘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까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까 완전히 해말갛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거를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냐 적으냐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자꾸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가슴을 가리키시며) 너 아니야? 화 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장담하죠, 예. 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원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혜오 감찰부장 김일봉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호계부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윤법전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광주,전남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전북종무원장 이기종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본지 766호(1월13일자) 26면에 게재된 '대한불교총화종' 정정 광고에서 현재 총화종 임원명단 중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스님이 본지 편집 착오로 누락 되었음을 바로 잡습니다.
총화종 종무행정에 혼란을 끼쳐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로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칼라샤크라, 배요온대, 다보명차, 아마따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다른 의미일 것 같아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A 질문하신 지혜와 자비는 불교 전체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수행과정에서 의심(疑心) 또는 의정(疑情)이 하나 일어나면 그것이 왜 그럴까를 풀어가면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육바라밀의 완성'으로 수행정진의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수행과정을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는 뭐가 다르죠?

지혜는 수행 목표, 자비는 선행 늘고 불행 줄이는 도움

모두 섭렵한 후에, 또는 동시적으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理想境)인 열반(涅槃)의 저 언덕에 이르는 방편인 것입니다.

혹자는 '자비'를 글자만 틀리지 사랑과 뜻은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참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慈悲)의 자(慈)는 선행과 기쁨을 계속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비(悲)는 슬픔과 악한 일들이 자꾸 줄어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법회를 할 때 '대자대비(大慈大悲) 하신 부처님이시여' 라는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자는 선행과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달라는 것이고, 대비 역시 불행과 나쁜 것은 많이 줄여 달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위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이질감이 있는 느낌이 들지요.

Q 저희 집은 형제가 둘입니다. 큰집(시아버지의 형님 댁)은 외아들이고요. 큰집에서 할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항상 저와 동서가 가서 제사 음식 장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큰집 형님이 며느리를 보았음에도 사촌 동서인 저희들한테만 제사음식 장만을 시킵니다. 저희가 "며느리는 제사 준비 같이 안하느냐"고 하면 "몸이 약해서 제사 음식하면 다음날 회사 출근을 못한다"면서 자기 며느리만 감싸고돕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 준비하러 조금 늦게 가면 싫은 내색하면서, 며느리만 위하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늦게 오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도 들구요.

사실 제사는 장손이 지내는 거고, 저희 같은 사촌 동서보다 오히려 그 집 며느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큰집 형님이 얄미워 제사 참석도 안하고 싶지만 혼자 계신 시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A 어느 가족이든 남녀노소가 다 섞여있고, 그 가정마다 특성이 다르지요.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연장자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부들은 제사나 명절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일로 몸이 좀 피곤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불필요한 신경전들이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신경전의 근본 원인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담자께서는 큰집 형님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일도 시키고, 손아래 동서(작은 어머니)를 공손히 받들도록 가르친다면서 서로 돕는 관계와 분위기를 만든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님 쪽에서 자신만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셔서 먼저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기분 좋게 만나서 맛있는 것 드시면서 수다도 떨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언짢은 마음도 푸시고 이해도 시키는 건 어떠세요.

또 아랫동서 입장에서 제사는 장손 책임이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한 장손의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장손의 입장을 더듬어 살펴주신다면, 아마 감동하여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실지도 모르겠네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001-01-2021-361
국민은행(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남은 인생 음악 연주로 회향할래요"

행복법당 탐방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평균연령 80세가 넘는 국내 최고령 밴드 '고양호수실버밴드' 멤버들이 실버밴드 경연대회를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2006년 창단 '한뫼누리예술단' 일산복지관 특화 사업

고양호수실버밴드, 각종 대회서 상 휩쓸며 노익장 과시

"오늘은 아파치(Apache)를 연습해 봅시다. 이건 아메리칸 인디언 음악이에요. 드럼이 말 달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 바로 그 다음 퍼스트기타가 화살이 '슝슝' 날아가듯 기타를 치는 겁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음악에 심취해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카피해 연주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악기 앞의 어르신도 학창시절 어설픈 아마추어의 실력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1월 21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대강당. 복지관 특별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고양호수실버밴드'의 어르신들이 단장의 지휘 하에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호수실버밴드는 평균연령 80세가 넘는 국내 최고령의 음악인 5인조로 구성된 밴드로 2001년 5월 12일 창단했다.

퍼스트기타를 맡고 있는 지연영(76 · 여) 어르신이 '베사메무쵸' '폼나게 살거야' 등 흘러간 옛 노래나 '범블부기' '아파치'와 같은 연주음악을 듣고 음계를 딴다. 타칭 '한국의 루이 암스트롱'인 박정근(트럼펫 · 84) 단장은 각 파트가 연주해야 할 부분을 손수 악보를 그려 나눠준다.

실력파 어르신으로 구성된 호수실버밴드는 2001 · 2006년 노인여가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 2008년 전국실버밴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외부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다.

어르신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박정근 어르신은 해군군악대 단원을 역임하고 공보부에서 주최한 작곡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베이스 주자로 활약하는 맏형인 정인섭(88 · 남) 어르신은 한국노인악단 창단 멤버이자 새별악극단, 라미라 악단의 단원을 역임했다.

키보디스트는 문형철(85 · 남) 어르신으로 미8군 문화부공연단원출신에 국방부와 KBS 악단에서 활동했다.

5인조 밴드에서 빠져서는 안 될 파트가 바로 드럼과 기타. 고양호수실버밴드에서는 주요 파트를 여성이 맡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지연영 어르신은 여성 최초 악단인 '세븐시스터즈'의 창단 멤버다. 기술적인 반주기법이 필요한 일렉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기타를 잡으면 쉬운 연주가 된다. 조병진(72) 어르신은 여고시절 밴드리더로 활약했다.

이들은 2001년 창단 이후로 크고 작은 행사,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에서 200여 건이 넘는 초청 공연과 위문공연을 해왔다.

실버호수밴드 활동은 멤버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을 남겼다. 박정근 어르신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줘 즐겁게 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연영 어르신은 "위문공연을 갔을 때 옛 노래를 들으며 회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잘 들을 수도 없는 곡들을 연주해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때 보람 있다. 남은 인생을 음악에 걸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인섭(베이스), 문병철(키보드), 조병진(드럼), 박정근(트럼펫), 지연영(기타) 어르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8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화된 사업이 고양시실버호수밴드를 포함한 한뫼누리예술단이다.

한뫼누리예술단은 복지관 내 단순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동아리사업을 전문화된 예술단으로 재구성해 재능 있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계발,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여가문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5년 창단한 예술단은 고전 · 현대무용, 합창단, 풍물, 에어로빅, 아코디언 등 각 분야의 기능을 소유한 어르신으로 공연팀을 구성해 무료공연을 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이 밖에 복지관은 호수문화대학(3년제), 복지문화대학원(2년제)을 설립해 여가, 교육,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령자 복지향상 및 평생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기존의 타 노인대학과는 구별되는 3년제 정규대학의 체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의 차별화 · 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을 꾀해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신개념의 고령자중심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만큼 복지관은 전국 최대 이용률을 자랑한다.

능인 스님은 "2009년 1월 10일 조사한 결과 복지관 이용자는 2만1750명, 일일 이용인원은 28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 · 고급화 · 전문화로 전국 노인복지관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노인복지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미얀마에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해요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미얀마 불교문화교류 성지순례 동행기



한국불교관(대불 내부 6층) 개원 예정인 140m 세계 최대 대불(보디따따웅 사원.)
큰 사진은 세산도 파고다에서 바라 본 천년고도 바간의 불탑군.

세계 최빈국 중 하나… 국민 행복지수 세계 3위

기술大 설립·신뿌 의식·저소득층 교육 지원 앞장

한국에는 '버마'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미얀마는 세계 최고 빈곤국 중 하나이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3위로 알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대륙과 인도차이나반도 사이에 위치한 미얀마는 태국 · 라오스 · 캄보디아 · 베트남 등과 함께 2500여 년의 불교역사를 갖고 있는 불교국가이다.

지난해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한 뒤 한국 불교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미얀마 현지에서는 한국 불교계보다 개신교계의 활동이 강한 실정이다.

미얀마 수도 양곤의 한국식당의 대부분을 개신교인이 운영할 정도로 교민의 80% 이상이 개신교인인데다 한 소수민족은 한국 기독교회의 선교활동으로 부족민 모두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와 한국을 이으며 부처님 법과 자비를 펼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500여 회원이 등록한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회장 목탁)는 2008년 서울 청진동에 미얀마문화원을 개원하고 종교 · 경제 · 보건 · 사회 · 문화 · 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얀마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는 단체이다.

1월 7~14일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가 주관한 미얀마 불교문화교류 성지순례에는 목탁 스님을 비롯해 교류협회 부원장 혜정 스님, 포교원장 천광 스님 등 사부대중 23명이 함께 했다.

불연(佛緣)으로 만날 수 있는 부처님 나라인 미얀마를 찾은 대중은 불탑의 나라 바간에서 부처님 법의 경이로움을, 인레 호수에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지만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온 미얀마에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안타까움과, 미얀마에 가득한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의 자비의 손길이었다.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는 미얀마 현지에서 한국기술대학과 한국불교관 건립을 비롯해 미얀마 전통 불교의식인 신뿌 의식 지원,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곤에 추진 중인 한국기술대학은 현재 부지만 마련된 상태이다. 미얀마 정부가 5만여 평에 이르는 대학부지를 목탁 스님에게 기증했지만 10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기공식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년제인 한국기술대학이 이곳에 세워지면 한국 · 영어 · 일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 자동차 · 봉제 기술 등 실용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목탁 스님은 학교가 건립되면 현지인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사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목탁 스님의 원력은 한국 사찰 하나 없던 미얀마에 한국 불교관 건립을 앞두고 있다.

만달레이 몽유와에 위치한 보디따따웅 사원에는 140m의 높이로 세계 최대인 대불과, 120m 규모의 와불이 봉안돼 있다. 대불 안 32층으로 갖춰진 법당 공간에 목탁 스님은 故 우나라다 스님의 도움으로 한국불교관을 6층에 마련하게 됐다. 현재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불교관은 올해 중 개관할 예정이다.

목탁 스님이 미얀마정부로부터 땅을 기증 받고 미얀마 스님으로부터 법당을 제공 받을 수 있던 것은 아낌없이 자비의 손길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신뿌 의식 지원이 그 예이다.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를 전후해 출가체험을 하는 행사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신뿌를 미얀마인은 가장 큰 기쁨의 행사로 여긴다. 하지만 워낙 빈곤한 까닭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신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목탁 스님과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는 돈이 없어 신뿌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했다.

할라 아야(58 · 타웅냥 주민)씨는 "돈이 없어 자식이 신뿌를 하지 못해 부모로서 항상 부끄러웠다. 한국 불자들의 도움으로 큰 소원을 이루게 됐다"며 "모든 부모들을 대신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 사업도 지원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학교를 세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얀마 불교에서 소외된 띨라신(여성 수행자) 사원 건립을 도와 4곳의 띨라신 사원을 세웠다.

명칭처럼 한국-미얀마간 친선교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2006년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는 한국 기업 · 단체 등의 후원에 힘입어 미얀마에서 '종합기술대학 건립자선 바자회' 등을 진행했다.

당시 이 행사에는 미얀마 최고의 인기가수 및 연예인, 지도층이 동참해 하루 만에 바자회 물건이 모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목탁 스님은 "바자회 수익금 모두는 현재 미얀마 종교성이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종합기술대학 건립에 전액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5일째 되던 날, 성지순례 일행은 양곤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 떨어진 해발 1100미터 바위산 위에 2500년 전 조성된 파고다 짜익티오를 찾았다. 짜익티오는 쉐다공 파고다, 마하무늬 파고다와 함께 미얀마의 3대 불교성지이다. 부처님 머리카락이 모셔졌다는 떠있는 바위 짜익티오에서 대중은 철야정진을 했다. 용맹정진 동안에도 사원을 찾는 미얀마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며, 대중은 같은 생각을 했다.

"저들의 행복한 배고픔이 채워질 때는 언제일까?"

행복한 배고픔의 나라, 미얀마가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린다. (02)733-5670

미얀마=영업부 이동격 부장

"전법 한마음으로 관심을…"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장 목탁 스님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과 수행풍토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불교에 불자로서 어찌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회장 목탁 스님(사진)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 미얀마문화원을 세우고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를 설립해, 불교성지로만 알려졌던 미얀마와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미얀마에는 목탁 스님 외에도 다수의 한국 스님 · 불자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체제인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 등 정치상 이유와 교류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목탁 스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얀마와의 교류 초기, 스님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남다른 원력으로 장애를 이겨냈다. 그 결과 스님의 원력에 감복한 미얀마 연방정부는 스님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됐다.

목탁 스님은 "성지순례와 현지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묶어 한국 불자들이 보다 많이 교류협회의 행사를 통해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를 구성해 누구나가 미얀마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목탁 스님은 "현지인에게 실용기술을 가르칠 한국기술대학이 기공식을 끝으로 정체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부처님 가르침 홍법을 위한 한마음으로 미얀마와의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어떠한 종단이나 사찰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미얀마문화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미얀마와의 교류를 위해 찾아주십시오."





연방승가회에서 주관한 마정수기(까바이 파고다).

미얀마 연방정부로부터 기증받은 나인따야 신도시의 5만평 기술대학교 부지.





교류협회의 지원으로 개원된 띨라신 사원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무료학교 행사.

저소득층 신뿌의식 지원(타웅냥 지역의 담마자야 사원).